

2019 K리그 기술보고서

2019 K LEAGUE 1
CHAMPIONS
JEONBUK HYUNDAI MOTORS

2019 K LEAGUE TECHNICAL REPORT



K LEAGUE



2019 K LEAGUE TECHNICAL REPORT - Introduction

“숫자로 보는 K리그 하이라이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9시즌의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총괄보고서 ‘2019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합니다.

K리그의 2019시즌은 우승부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강등권 싸움까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싸움을 펼쳤습니다. 그 치열함의 정도를 한 권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올 시즌 트렌드를 기록한 이 리포트를 통해 2019 K리그 추억들을 조금이나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2019시즌 K리그를 강타한 강원FC 김병수 감독의 ‘병수불’, 외국인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 포메이션 트렌드, K리그 흥행을 이끈 대구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2019시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웨어러블장비를 통해 선수들의 피지컬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활용해 이번 리포트에서 K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와 가장 많이 킥 선수를 소개하는 항목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이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기록된 각종 숫자를 통해 올 시즌 K리그의 하이라이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K리그를 사랑해 주신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CONTENTS

01	2019 SEASON OVERVIEW	06
	울산현대 vs 전북현대, 이보다 더한 드라마는 없었다	08
	파이널 라운드 전쟁	12
	광주 독주와 부산의 3전4기	14
	K리그1, K리그2 순위표	15
02	TECHNICAL TOPICS	16
	K리그 강타한 ‘병수불’의 실체	18
	속도와 체력이 경기를 지배한다	20
	골 넣는 수비수와 외국인 선수 활약상	21
	포메이션: 트렌드가 보인다	22
	관중 통계: K리그, 대구발 바람이 분다	25
03	ANALYSIS	26
	GOAL PATTERN: 골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28
	ATTACKING: 공격을 끝낸다	30
	PLAYMAKING: 기회를 창출하다	32
	HARDWORKING: 끊임없이 부딪히다	34
	DEFENDING: 위기에서 벗어나다	36
	GOALKEEPING: 골문을 지키고 공격을 열다	38
	TEAM OF THE YEAR: K리그1	40
	TEAM OF THE YEAR: K리그2	42
	RESULTS: 베스트지, 이렇게 선정했다	43
04	TEAM PROFILES 44	
	K리그1	46
	K리그2	58

데이터 항목 정의

공격 상대 진영으로 가는 길의 공 점유 상황에서 팀 움직임	인터센트 상대팀의 정확한 패스 혹은 슈팅 이후에 볼 소유권을 획득하는 플레이. 인터센트는 상대팀의 공격을 막는 적극적인 플레이
공 속도 공을 점유하는 동안 미터로 계산한 공의 궤적, 궤적을 모두 합해 공 점유 시간으로 나눔. 단위는 미터/초	태클 볼을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통해 볼을 떼어놓는 것
패스 같은 팀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는 행위	공 되찾음 상대팀의 공 점유가 끝난 상황에서 선수의 움직임(인터센트, 공 잡기, 몸싸움 성공) 및 역습 기회 시작
키페스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에게 패스(대외 상황), 슈팅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점유 3번 이상의 볼터치. 공을 가지고 최소 6m 이상의 범위를 이동했을 시, 명백한 공격 전개를 위한 행동
전진패스 상대 진영을 향한 패스	공격 1/3지점 축구장을 가로로 삼등분 했을 때 상대 골문 쪽에 해당하는 범위
페널티박스 안 패스 페널티 박스 내로 보낸 패스	유효슈팅 골키퍼에 의해 막아진 슛. 슛 정확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세 이브된 것이라면 유효슈팅으로 지칭
장거리패스 패스 거리가 4m 이상인 패스	득점 공격의 플레이 득점 상황에서 골이 발생하기까지 패스와 크로스 등의 액션
공격형 경합 상대팀 공격 지역에서 상대방과 경합하는 플레이	
공중볼 경합 공중에 뜬 공을 두고 양 팀 선수가 공중에서 경쟁하는 플레이	
수비형 경합 자기팀 수비 지역에서 상대방과 경합하는 플레이	

01 OVERVIEW

2019 K리그1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순위 싸움이 펼쳐졌다. 전북현대가 울산현대와 치열한 승부를 벌인 끝에 파이널라운드 최종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3위부터 6위까지 모든 팀들이 '참전'한 아시아 무대 진출 티켓도 마지막 경기에서 FC서울 손에 쥐어졌다. 강등권 싸움도 마찬가지. 인천유나이티드를 숨가쁘게 추격하던 경남FC는 최종 맞대결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승강 플레이오프로 내몰렸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K리그2 2위 팀 부산아이파크의 '3전4기' 분투에 발목을 잡혔다. 한편 K리그2 광주FC는 시즌 내내 선두를 독주하며 여유있게 새 시즌 1부리그 복귀를 확정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는 없었다

전북현대 vs 울산현대

지난 9월 프로축구연맹은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승강제를 실시한 2013년 이래 28라운드를 기준으로 1위인 팀이 그해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2016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6시즌 모두 28라운드 1위 팀이 그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1위와 2위 차이가 늘 2경기 이상이었고, 평균 승점차는 7.8이었다.

2019년에는 달랐다. 28라운드를 치른 당시 1위와 2위였던 전북과 울산의 승점차는 '1'에 불과했다. 전북이 독주하던 예년과 비교해 강력한 양강 체제가 이뤄졌다. 1점차 추격을 이어가던 울산은 실제로 32라운드에서 전북을 추월하고 선두에 올랐다. 37라운드 맞대결은 우승 싸움의 하이라이트였다. 1-1로 비기면서 승점 3점차가 됐다. 결과적으로 울산 입장에서선 우승 깃발을 빼들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고, 전북 입장에서선 실낱같은 우승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 38라운드에서 기어이 운명이 뒤 바뀌었다. 울산이 포항에 1-4로 크게 패한 반면 전북은 강원으로 1-0으로 잡고 승점 3을 추가, 다득점에서 울산에 한 골 앞서며 대역전 우승 드라마를 썼다. K리그1의 '28라운드 징크스'는 유효했던 셈이다.

28라운드 1위 팀=우승팀?

시즌	1위	2위	승점차
2019	전북(60)	울산(59)	1
2018	전북(66)	경남(50)	16
2017	전북(57)	제주(51)	6
2016	전북(62)	서울(49)	13
2015	전북(59)	수원(50)	9
2014	전북(53)	포항(51)	2
2013	포항(52)	울산(51)	1

*정규리그 28라운드 기준. 괄호 안은 승점

전북의 관성은 트로피다

전북 우승 레이스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 하나는 감독 교체다. 14년 간 팀을 맡았던 최창희 감독이 중국으로 떠나고 포르투갈 출신 조세 모라이스가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감독 한 명만 바뀌어도 팀 분위기, 문화, 전술, 선수 활용법이 모두 달라진다. 이런 과도기를 버텨내는 게 첫 번째 과제였다. 다른 하나는 간판 스트라이커 김신욱의 공백이었다. 전반기 거의 홀로 전방에서 팀을 이끌다시피 한 김신욱의 부재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확보하는 일부 터 득점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겼다. 마지막으로 파이널라운드 들어 치열해진 우승 경쟁에서 '추격자'의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했다.

이 모든 변수를 전북은 관성의 힘으로 통제했다. 안정된 수비와 정곡을 찌르는 마무리는 변함없었다. 리그 최다 득점(72득)에 최소 실점(32실)의 균형을 자랑했다. 점유율(55%)에서는 강원(58%)에 밀렸지만 상대 진영, 즉 공격적인 볼 점유율에서는 1위(65%)를 지켰다. 오픈플레이, 역습, 세트피스를 합산한 공격 지수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보내는 패스가 가장 많았고, 공격형 경합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팀이었다. 전북의 지향점을 뚜렷이 반영하는 숫자들이다. 김신욱 이적 후 공백은 문선민이 효과적으로 메웠다. 팀에 모두 20개의 포인트(10골10도움)를 안긴 문선민은 로페즈, 이동국과 함께 팀내 공격 지표에서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실점없이 지킨 경기도 15경기나 된다. 2년 연속 0점대 실점율을 유지한 골키퍼 송범근의 선방 활약이 빛났다. 골문 앞에서 단단한 벽을 세워준 수비수들의 공헌도도 컸다. 홍정호는 공 되찾음(311), 인터셉트(219)에서 높은 지수를 기록했고, 손준호는 태클 시도, 파울, 프리볼 잡기 등에 두루 좋은 활약을 보이며 중원 장악에 힘을 실었다. 공수에서 균형을 유지한 전북의 관성은 막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이어졌다. 38라운드 강원전에서 실점 없이 승리를 낚으며 리그 3연패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북은 통산 최다 우승(7회)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경쟁에 불을 댕긴 울산의 활력

울산이 전북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었던 건 공격과 수비에 걸쳐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 시즌 대비 득점은 증가했고(61골▶71골), 실점은 감소(46실▶39실) 했다. 지난해에는 주니오라는 걸출한 득점원(22골)이 고군분투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주니오(19골) 외에 김보경(13골), 김인성(9골), 믹스(6골), 주민규(5골)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이 득점 부담을 골고루 나눴다. 특히 김보경은 팀 공격의 유희유 같은 역할을 했다. 김도훈 감독은 그 활약상에 대해 "중앙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김보경 덕에 스피드가 좋은 측면 자원까지 선택지가 늘어났다"면서 "직선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속공과 지공을 고루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김보경은 득점 전 10초를 기준으로 골 결정에 기여한 선수를 가리키는 '득점 공격의 플레이' 항목에서 1위였다. 71골 중 무려 58%에 해당하는 41골에 관여했다. 키퍼스 2위(78), 오프사이드 위치로 보내는 패스 5위(7) 등의 지표도 김보경의 '번뜩이는' 활약상을 입증한다. 역설적으로 김보경이 막혔을 때 울산은 공격에 활기를 잃었다. 포항과 최종전에서 김보경의 패스 성공률은 67%였다.

시즌 평균 80% 성공률을 자랑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진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보내는 패스는 12개 중 4개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울산이 마지막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기록이다. 성적표는 아쉽지만 울산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김보경과 믹스로 이어지는 '굿패서' 조합을 세운 팀답게 경기당 평균 키퍼스 시도(13회)가 가장

많았다. 득점 상황에서 평균 패스 숫자(9.2)도 전북(9.1)보다 많은 1위였다. 역습에 의한 득점 비율(46%)이 가장 높은 팀이기도 했는데, 골문으로 향하는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인성, 황일수, 김태환, 이명재, 이근호 등 준족의 측면 자원들이 다수 보유한 결과였다.

2019시즌 전북현대 주요 기록



최종순위 1 위 (우승)	득점 72	실점 32	공격 횟수 (경기당) 94
세트플레이 득점 15	페널티킥 성공률 50%	점유율 55%	패스성공률 84%
슛 성공률 13.7%	인터셉트 (경기당) 46	소유권 회복 (경기당) 54.8	경고/퇴장 79/1

2019시즌 울산현대 주요 기록

최종순위 2 위	득점 71	실점 39	공격 횟수 (경기당) 80
세트플레이 득점 17	페널티킥 성공률 60%	점유율 50%	패스성공률 83%
슛 성공률 16.8%	인터셉트 (경기당) 47	소유권 회복 (경기당) 58.9	경고/퇴장 70/1



네 번의 맞대결, 이러니 끝까지 갔지!

1차전

	2-1	
11라운드 05.12(울산)		
61' 김인성 90(+1)' 김보경		90(+2)' 이승기



2019시즌 첫 맞대결 승리는 울산이 가져갔다. 볼투이스-윤영선 두 센터백이 결장했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이 없으면 믿음으로 전북 공격을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켰다. 전북이 추격의 불씨를 살렸을 때 시간은 모자랐다. 울산은 4년 만에 전북 상대 승리를 챙겼다.

2차전

	1-1	
21라운드 07.14(전주)		
9' 이동국		33' 주민규



선두 경쟁이 치열해진 순간 펼쳐진 대결이었다. 이른 시간 골이 터지면서 다득점 경기 양상을 예고했지만, 후반 양 팀 모두 득점이 침묵하며 승점 1점을 나눠 가졌다. 승부는 가리키지 못했지만 선두 경쟁다운 재미를 남겼다.

3차전

	3-0	
26라운드 08.16(전주)		
49' 윤영선(OG) 51' 로페즈 63' 로페즈		

전북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울산을 방해하며 기세를 올렸다. 1골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컸다. 윤영선의 자책골로 울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전북이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 전북은 세 번째 대결에서 정상 탈환과 함께 통산 리그 400승도 달성했다.

4차전

	1-1	
37라운드 11.23(울산)		
61' 볼투이스		49' 김진수

울산이 승리하면 우승을 확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을 끌고 갈 경기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승부에 반영됐다. 후반 4분 김진수가 선제골에 성공했지만 후반 26분 볼투이스가 동점골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역사가 됐다.

They said...

"열심히 뛰어진 선수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다... (중략)... 이동국, 이용, 홍정호 같은 고참급 선수들의 많은 도움이 팀을 이끄는 데 힘이 됐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우승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승점이면 우승을 했겠지만, (울산전)울산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팬들은 정말 재미있게 봤을 것 같다. 우승컵을 통해 이전의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동국)

"포항의 세 번째 골 소식(흥구장에) 들리는 순간 갑자기 앞에서 형들이 미친 듯 뛰더라. 힘들어서 못 뛸 것처럼 보이던 형들이 다 태클하고, 몸을 날리고, 더 열심히 뛰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너무 벅찬 감정이었다." (송범근)

다공과 비교하면 모라이스 감독은 선제 득점 후 수비적인 전술로 변화를 주는 경향이 있다. 빌드업, 패스 및 볼 점유 시간은 늘었지만 경기 템포를 다소 늦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37라운드 맞대결을 통해 전북의 저력을 확인했다. 우승 경험이 많은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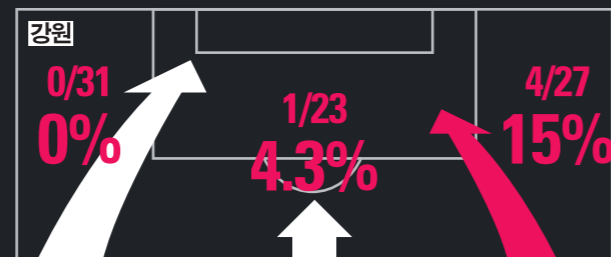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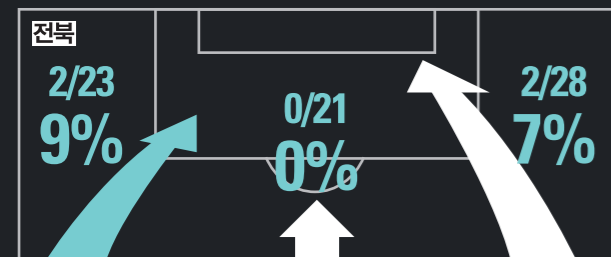
(경기위원회 결산 리포트 발췌)

FINAL MATCH



전북	강원
1	0
44	56
80	87
8	6
2	3
5	3
10	19
4	3
0	0
417	532
325	439

공격방향(성공/슈팅시도)



STATISTICS



울산	포항
1	4
46	54
103	90
13	16
10	13
5	5
11	14
1	2
0	0
485	462
387	365

They s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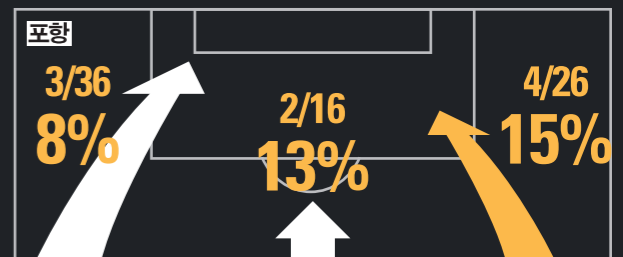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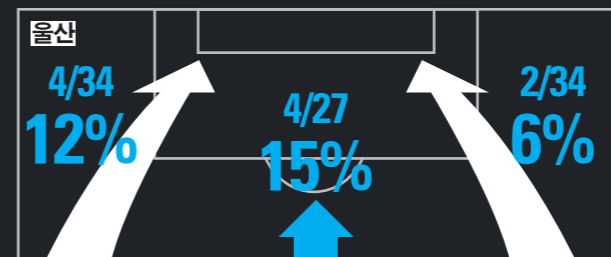
"우승 기회를 놓친 오늘이 가장 아쉽다. 경기가 안풀렸다기 보다 1골 먼저 실점하고 따라가다 보니 급했던 것 같다. (김승규 실책으로 세 번째 골을 내준 상황은) 괜찮다. 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빠르게 처리하려다 나온 상황이다. 축구에서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도훈 감독)

"골을 먹고 흔들리다 보니 급해지고, 부담이 커졌다.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꼬인 것 같다. 볼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나도 활로를 뚫어줘야 했는데 많이 막혔다." (김인성)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기억해야 한다. 한 경기로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2등을 실패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실패다. 올해 얻은 것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한다면 울산은 더 강해진다고 믿는다." (김보경)

김보경, 신진호, 주민규, 윤영선, 불투이스, 김승규 등 신규 보강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우승권으로 도약하게 만든 힘이었다.

(경기위원회 결산리포트 발췌)



파이널 라운드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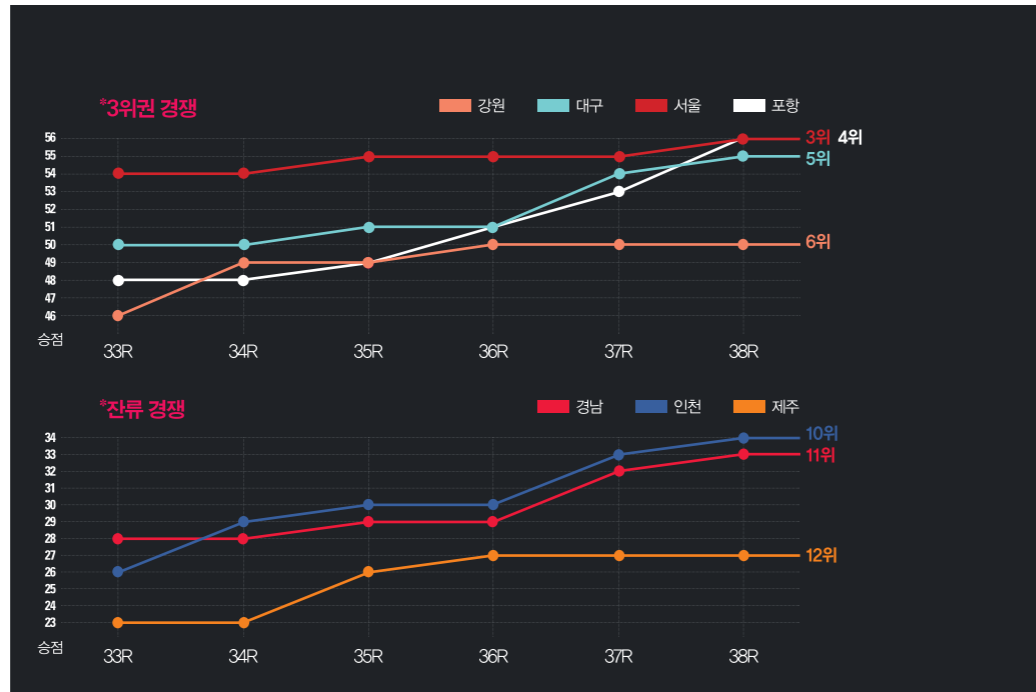
K리그1 순위 싸움은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였다. 우승 싸움 외에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벌이는 3위권 다툼,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잔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순위 구간마다 거의 모든 팀이 참전했다.

유례없는 파이널 전쟁

이번 시즌 스포릿 시스템은 그 모미를 극화했다. 상위(파이널A)에서는 우승 경쟁과 3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하위(파이널B)에서는 3개 팀이 생존을 놓고 매 라운드 벼랑 끝 전쟁을 이어갔다. 승점 싸움에 라운드별로 희비가 갈렸다. 팀 간 승점차가 좁혀질수록 역전 혹은 추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독들은 자신의 팀을 단속하는 심리전부터 상대팀을 견제하는 신경전, 타팀의 도움을 구하는 눈치싸움까지 벌여야 했다.

3위 싸움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팀은 서울이었다. 줄곧 3위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파이널라운드 돌입 후 단 1승도 챙기지 못했다(2무3패). 승점 2점을 얻으며 제자리걸음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아래 팀들이 추격의 속도를 높였다. 36라운드 종료 시점에는 3위부터 6위까지 승점차가 두 경기 내로 좁혀졌다. 산술적으로는 파이널A 모든 팀에게 3위 가능성이 열린 상황. 37, 38라운드에서 포항에 이어 대구를 상대하는 일정은 서울을 코너로 몰았다. 서울이 포항에 0-3으로 완패했던 37라운드 종료 시점엔 서울(55), 대구(54), 포항(53)이 승점 1점차 간격으로 줄을 서 긴장감을 높였다.

서울과 대구가 맞대결을 벌인 마지막 대결이 무득점 무승부로 끝난 덕에 서울은 3위를 지켰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 포항은 파이널라운드에서만 승점 8점을 쓸어 담았다. 정규리그 최종전인 33라운드부터 파이널 최종전인 38라운드까지, 3위 경쟁 4개 팀 중 가장 많



은 11골을 넣었다. 주요 승부처에서 팀 내 해결사들의 존재감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 기간 동안 포항의 외국인 3인방은 8골을 넣었다. 팔로세비치(4골), 완델손(2골), 일류첸코(2골)가 골고루 제몫을 했다. 대구도 세징야(3골), 에드가(1골), 김대원(1골)의 득점 활약이 돋보였다. 서울의 페시치(0골), 박동진(0골)이 이 기간 침묵한 것과 비교된다. 박주영(2골)이 체면치레 하는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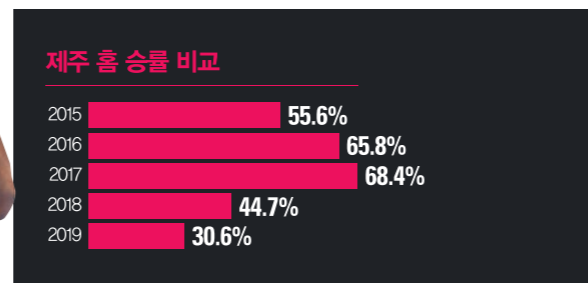
생존 싸움 역시 제대로 불 붙었다. 이례적으로 세 팀이 물고 물리는 잔류 경쟁을 펼쳤다. 인천과 경남, 제주다. 10라운드부터 형성된 경쟁 구도는 순위가 바뀔 때마다 각 팀명 앞글자를 딴 '제경인', '경인제', '인경제' 등으로 불리며 회제를 모았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른 때는 36라운드였다. 경남이 상주에 패하고 제주-인천 맞대결에서 제주가 승리하면서 세 팀의 승점차가 순식간에 3점으로 좁혀졌다. 제주가 '탈꼴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러나 37라운드에서 수원에 2-4로 패하며 강등이 확정됐고, 38라운드 인천과 경남의 맞대결이 무득점 무승부로 끝나면서 11위였던 경남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내몰렸다. 인천은 또 한번 잔류에 성공하는 '가을 동화'를 썼다.

경남과 제주의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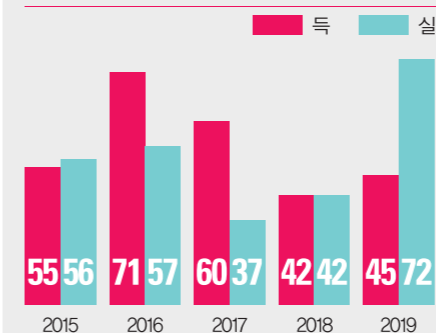
경남은 시즌 막판 부진한 경기력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2 2위팀이었던 부산의 기세를 감당하지 못했다. 두 차례 대결에서 1무1패로 강등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경남과 제주의 추락은 K리그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남은 지난해 준우승을 거둔 팀이고 제주는 K리그 프로 1호 팀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구단이기 때문이다.

부진의 원인은 명확한 편이다. 경남은 올시즌 AFC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면서 빡빡해진 경기 일정과 컨디션 관리에 미숙했다. 주전들의 줄무상에 대한 대응책 역시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말년의 부재를 메울 만한 확실한 득점원도 찾지 못했다. 제



주는 모든 숫자가 지난해와 정반대다. 득점이 줄었고 실점이 폭증했다. 특히 실점은 지난해(42실점)에 비해 30골이나 증가했다. 승강제를 실시한 이래 최다 실점과 타이를 이뤘다. 제주 외에 2015년 대전이 72실점을 기록한 적 있다. 홈승률도 급락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연고지 특성상, 홈에서는 전략적으로 승리를 챙겨야 유리했다. 그런데 홈승률이 지난해 44.7%에서 올해 30.6%로 떨어졌다. 팀의 경기력이 절정에 올랐던 2017년(68.4%)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다. 수비력을 개선하지 못한

제주 득실 비교



불안감이 시즌 내내 제주를 괴롭혔다.

한편 순위 구간마다 형성된 경쟁 체제는 시즌 막바지 몰입도를 높였다.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시즌 초반과 38라운드 종료 시점을 비교해 보면 득점과 슈팅, 실제경기시간(APT)이 점차 증가했다. 파울과 경고, 퇴장 등 부정적 요소는 감소했다. 막판으로 갈수록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다는 뜻이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재개한 '5분 더 캠페인'도 효과를 봤다. 7라운드부터 경기가 중단된 시간을 사유

별(아웃 오브 플레이, 파울, 부상, 선수교체)로 나누어 팀별 통계를 산출하고 수치화했다. 또 매라운드 'GOOD(경기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끝까지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경기의 질을 끌어올림)' 사례, 'BAD(경기 지연 행위나 의도적 반칙 등 경기의 질을 반감시킴)' 사례를 선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주장 간담회, 감독 간담회 등에서도 이를 공유해 현장의 참여를 독려했다.

막판으로 갈수록 재미있다 (경기당 평균)

	2019 K리그1 7R 종료 시점	증감	2019 K리그1 38R 종료 시점
득점	2.26	↑	2.57
슈팅	21.54	↑	22.49
파울	26.81	↓	26.14
경고	3.57	↓	3.30
퇴장	0.07	↑	0.08
APT(실제경기시간)	57분 45초	↑	58분 33초



광주 독주와 부산의 3전 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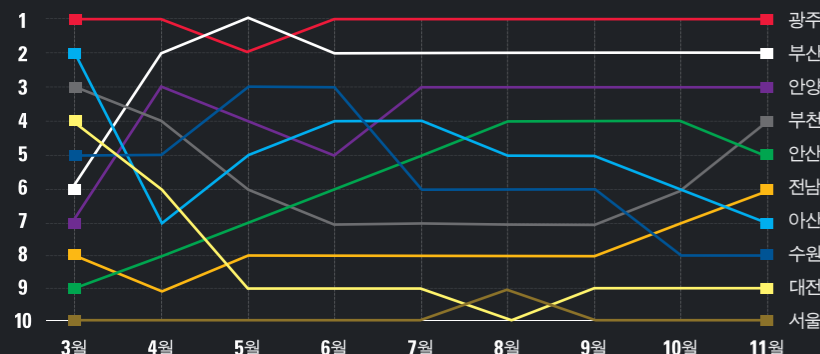
2019시즌 K리그2도 예측불허였다. 광주FC가 전망을 뒤엎고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고, 부산아이파크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웃었다. 5년 만의 K리그 합류다. 결국 공격적인 팀이 살아남았다.

광주의 1위 돌풍과 3년 연속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부산의 저력은 적극성, 그리고 공격력으로 읽을 수 있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상당히 뚜렷하다.

광주는 득점 3위-최소 실점 1위를 차지한 균형이 돋보인다. 공격은 효율적이었다. 패스 시도는 최하 위였으나, 키퍼스의 정확도가 리그 유일하게 60%대를 넘어서었다. 득점왕(19골)을 차지한 펠리페는 효율의 중심이다. 슈팅 중 49%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다. 광주의 저력은 상대 진영 경합 상황에서 가장 빛났다. 경합 기록 대부분을 휩쓸었다. 경기당 공격형 경합(90), 수비형 경합(85), 공중볼 경합(64), 땅볼 경합(111) 모두 1위다. 성공률도 전 부문 리그 평균을 웃돌았다. 볼 점유율 리그 9위권(경기당 24분44초)이었으나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는 60%대를 보였다. 광주가 얼마나 무의미한 볼 소유를 하지 않고 집중력 높은 축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의 공격 지표는 단연 압도적이다. 최다 득점자 상위 10인 중 4명(호물로, 이정협, 이동준, 노보트니)을 배출했다. 다양한 득점 루트에서 쏟아지는 슈팅은 경기당 14.9개로 리그 내 가장 많았다. 가장 큰 무기는 세트피스로 나타났다. 경기당 0.84골을 세트피스로 뽑아냈다. 리그 평균이 0.52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효율이 높은 수치다. 페널티 킥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은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13개 페널티킥을 획득, 그중 10개를 성공했다. FC안양의 기록도 눈여겨볼만하다. 볼 점유율과 패스 시도가 하위권이나 상대 진영 경합, 크로스 시도, 키퍼스 등이 상위권(이상 2위)을 기록한 광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결국 정확한 목표의식이 성적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9 K리그2 순위변동 추이 (*월별 마지막 경기 기준)



73

부산이 기록한 2019 K리그2 최다 득점 기록. 득점 2위 안양에 9골 앞섰다. 광주보다는 14골이 많았다. 부산 지난 시즌 대비, 무려 17골이 늘었다.

31

세트피스로 넣은 득점 역시 부산이 가장 많았다. 부산 전체 득점 42%에 해당한다. 광주도 23골로 상위권(3위)을 차지했다. 세트피스라는 확실한 무기가 순위 경쟁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37.1

공을 빼앗긴 위치에서 상대편 골대까지 평균 거리는 광주가 가장 짧았다. 37.1m다. K리그2 평균 39.1m 대비 2m나 가깝다. 공격 상황에서의 적극성을 읽을 수 있다.

15

경기당 키퍼스 시도와 성공 횟수 모두 부산이 가장 많았다. 부산은 경기당 15개 키퍼스를 뿌렸다. 그중 경기당 8개를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률은 리그 평균과 같은 55%를 기록했다. 광주는 경기당 9개를 시도해 숫자 자체로는 많지 않았으나, 성공률이 리그 최고(61%)로 효율이 빛났다.

34

경기당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 역시 부산이 34개로 가장 많았다. 그중 15개가 제대로 들어가 성공률 43%를 보였다. 리그 평균과 같다. 광주는 32개를 기록해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성공률은 45%로 리그 평균을 상회했다.

90

경기당 공격형 경합 횟수 1위 기록은 광주가 차지했다. 성공률은 48%로 역시 리그 평균(45%)을 웃돌았다. 광주는 수비형 경합, 구역별 경합에서도 1위에 오르며 공수에서의 적극성을 기록으로 입증하였다.

부산 지난 3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결과

- 2019 부산아이파크 2-0 경남FC 0-0, 2-0 ∴ 부산 승격
- 2018 부산아이파크 2-4 FC서울 1-3, 1-1 ∴ 서울 잔류
- 2017 부산아이파크 1-1 상주상무 0-1, 1-0 / pso 4-5 ∴ 상주 잔류

RESULTS

2019 K리그1 순위표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전북	79	22	13	3	72	32
2	울산	79	23	10	5	71	39
3	서울	56	15	11	12	53	49
4	포항	56	16	8	14	49	49
5	대구	55	13	16	9	46	37
6	강원	50	14	8	16	56	58
7	상주	55	16	7	15	49	53
8	수원	48	12	12	14	46	49
9	성남	45	12	9	17	30	40
10	인천	34	7	13	18	33	54
11	경남	33	6	15	17	43	61
12	제주	27	5	12	21	45	72

2019 K리그2 순위표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광주	73	21	10	5	59	31
2	부산	67	19	13	5	73	47
3	안양	55	15	11	12	64	52
4	부천	51	14	10	13	50	52
5	안산	50	14	8	14	46	42
6	전남	48	13	9	14	43	47
7	아산	44	12	8	16	42	56
8	수원FC	43	11	10	15	49	55
9	대전	35	8	11	17	31	47
10	서울E	25	5	10	21	4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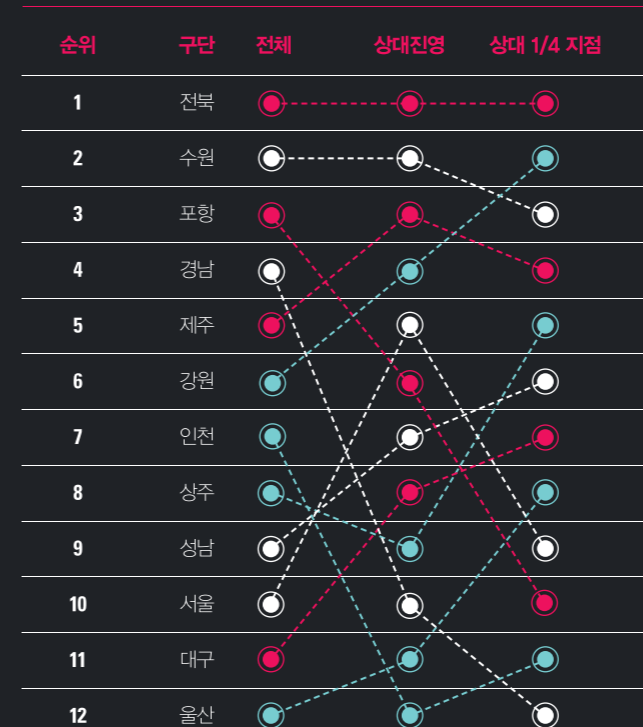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12월 5일, 구덕운동장)

부산 0-0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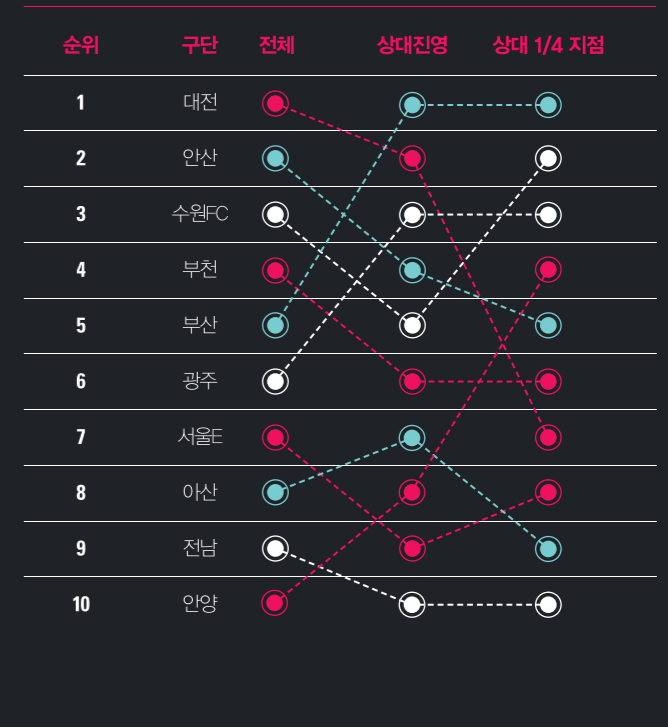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12월 8일, 창원축구센터)

경남 0-2 부산

K리그1 점유율 순위표



K리그2 점유율 순위표



02 TECHNICAL TOPICS

2019년 K리그에는 백스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팀이 많아졌다.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시스템부터 공격-수비 전환에 유연성을 주는 변형 시스템까지, 다양한 전략이 눈에 띄었다. 압박은 더 치열해졌고, 이를 뚫기 위한 공격 전술도 세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돌아온 답은 '관중 증가였다.'



철학이 어떻게 축구지형을 바꾸는가

K리그 강타한 '병수볼'의 실체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강원 돌풍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강등 유력후보로 꼽는 전문가도 있었다. 그러나 강원은 시즌 내내 'K리그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파이널A에 진입했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전방을 향하는 이 매력적인 축구에 '병수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K리그에서 가장 뚜렷한 색채를 가진 팀으로 평가받았다.

볼은 하나다, 볼을 소유하라

"출발은 수비였다." 김병수 강원 감독은 '병수볼'을 정의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선문답 같은 말에 철학이 묻어났다. 풀자면 이렇다. 객관적인 전력상 강원은 도전적인 축구를 시도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K리그1 잔류를 고민해야 하는 팀이었다. 강등되지 않으려면 수비 조직을 견고하게 다듬은 뒤 역습에 나서는 전략을 취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현실 인식이다. 다만 대응책이 달랐다. 김병수 감독은 "수비를 하되, 볼 없이 뛰는 것보다 볼을 갖고 수비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볼을 가지면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 주도권을 갖기 때문이다. 수비진에서 볼을 소유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뤄지니까 그 다음에는 볼을 갖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가능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를 거듭할수록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가 위쪽(전방)으로 옮겨진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언뜻 요한 크루이프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점유율 축구에서 일가를 이룬 그는 "볼은 하나다. 그러나 볼을

가져야 한다"는 철학을 설파했다. 김병수 감독은 크루이프의 신념에 영감을 얻은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론에 그친 게 아니다.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볼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팀이 바로 강원이다. 볼 점유율은 58%로 전북(55%)과 상주(51%)보다 높았다. 볼을 갖고 플레이 한 시간은 평균 32분57초. 역시 K리그 1위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상대전형'에서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공격적인 볼 점유율에서는 오히려 순위가 떨어진다. 리그 12개 팀 중 6위(61%)다. 이 부문에서 1위인 전북(65%)과도 비교되는 숫자다. 앞서 "볼을 갖고 수비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김병수 감독의 발언에 비추어보면 전체적인 점유율과 공격적인 볼 점유율에서 나오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점유율의 근간은 패스 플레이다. 강원은 1부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경기당 572회)한 팀이다. 전방으로 향하는 공격 패스 성공률은 81%. K리그1에서 유일하게 80%대 정확성을 자랑한 팀이었다. 볼 점유율 분 단위로 정확한 패스 횟수를

계산한 분 당 패스에서는 포항(14.9)에 이어 2위(14.8)를 기록했다. 패스 길이는 평균 18.4m로 12개 팀 중 가장 짧았다. 단거리 패스(139), 중거리 패스(401) 시도 횟수는 가장 많았고, 장거리 패스(33) 시도 횟수는 리그 평균(33)보다 적었다(32). 요컨대 짧은 패스 위주로 전역역에 걸쳐 점유율을 높이는 스타일이었다.

수비는 5-2-3, 공격은 4-3-3

강원 축구가 매력적으로 보인 이유 중 하나는 변화무쌍한 전술이었다. 큰 그림으로 이해하면 수비시 5-2-3 포메이션, 공격시 4-3-3 대형을 유지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변화상은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다. 이슬기 강원 코치는 "숫자로는 백스리(back 3)로 출발해도 경기 중에는 두 명의 센터백이 골문 앞을 지키고 수비수 한 명이 미드필드로 올라서는, 사실상 2-3-5 형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백포(back4)의 풀백을 주로 소화하던 신광훈이 백스리 한 축으로 출발했다가 상대 진영 페널티박스까



패스 길이

순위	팀	길이(m)	단거리/성공률	중거리/성공률	장거리/성공률
1	경남	20.3	102/80%	279/83%	42/67%
2	인천	19.6	106/85%	283/83%	35/60%
3	성남	19.4	101/80%	289/85%	33/62%
12	강원	18.4	139/84%	401/88%	32/62%

한국영은 그런 염려를 없애주는 선수였다"고 부연했다. 신광훈의 존재감도 뚜렷했다. 신광훈은 키퍼스에서 팀 내 1위(56)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 수상자인 '골게터' 김지현은 자신에게 가장 맛깔스러운 패스를 공급해주는 선수로 신광훈을 꼽았다. 보통은 2선 공격수나 미드필더를 주요 파트너로 지목한다. 수비수가 그 대상인 경우는 흔치 않다. 신광훈의 키퍼스 기록은 K리그 전체 11위였는데, 상위 선수들이 세재야(100), 김보경(78), 완델손(69), 로페즈(66) 등 모두 공격 자원들이라는 점에서 뚜렷이 대비된다. 골문 앞에서부터 최전방에 이르기까지 '볼 소유'라는 강원의 대전제에 충실했던 선수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강원은 전체움직임에서 1위(886)에 오른 팀이었다. 전체움직임이란 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슈팅과 모든 종류의 패스, 경합, 인터셉트, 프리볼 잡기, 드리블 등을 합산한 숫자다. 연맹 경기위원회는 강원 축구에 대해 "선수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간결한 패스를 통해 공격 작업을 펼치는 것에 능하다"라는 찬사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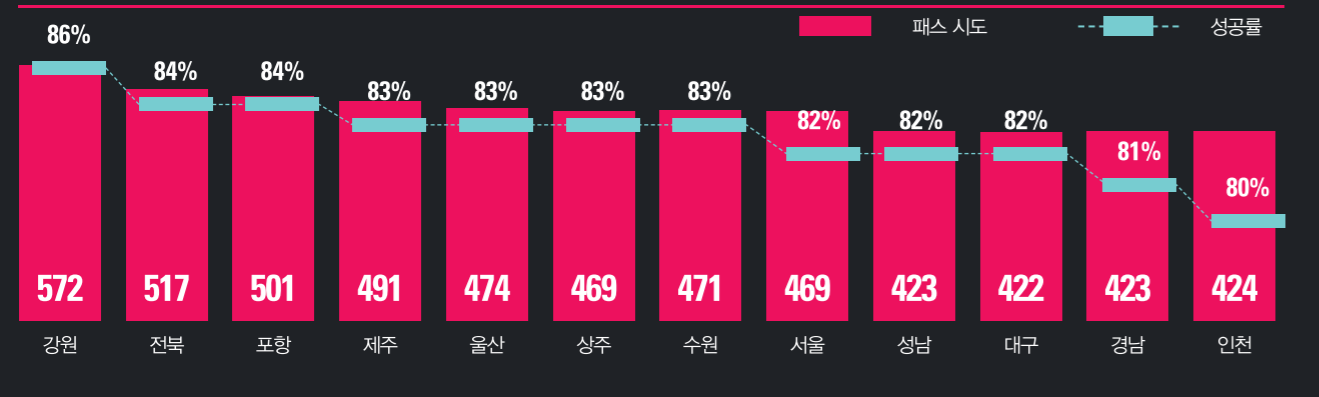
수비에서 출발한 공격 축구, 지형을 바꾸다

강원은 이번 시즌을 6위로 마쳤다. 딱 중위권을 턱걸이한 순위지만 슈팅, 패스, 세트피스 등 공격 지표에서는 대부분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약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슬기 코치는 "볼 소유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상대가 대놓고 수비를 하면 쉽지 않다. 슈팅까지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방 압박이 좋은 대구나 전북에 고전했던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병수 감독 역시 '탈압박'이 가능한 스피드 레이스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발 빠른 선수가 아쉬웠다. 공격에서 큰 무기 중 하나인 역습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숫자가 그 증거다. 볼을 뺏은 후 오픈 플레이로 이뤄지는 역습 기록에서 강원은 최하위였다. 경기당 평균 10회를 기록했다. 대구는 15회, 전북과 제주, 서울 등은 14회였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득점 3위(56골)에 해당하는 화력을 보이고도 실점(58)이 많아 승점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시즌 막판 10경기 전적은 좋지 않다. 2승2무6패다. 10경기에서 13골을 넣고 18실점을 기록했다. 자기진영에서 패스가 잦은 팀 플레이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패스미스가 결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기 코치는 "수비진영에서 패스가 많았다고 해서 실점 확률이 높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실질 장면을 분석해보면 조직적인(패스플레이) 문제보다 개인의 실수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특정 선수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골 허용에 관한 문제인데, 감독님은 '공격하겠다'고 마음 먹은 팀이라면 그 정도 리스크는 감당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수 감독은 "2019년은 철학의 완성도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 같다. 템포를 높일 수 있도록 팀의 틀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점유율과 공격이 축구의 '절대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잔류 혹은 생존이라는 과제 앞에서 공격을 택하거나 수비를 취하는 문제도 선과 악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공격을 택했다"는 강원의 결말이 파이널A였다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출발이 '수비였다'는 고백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경기당 패스 시도 / 성공률



<수비시>



<공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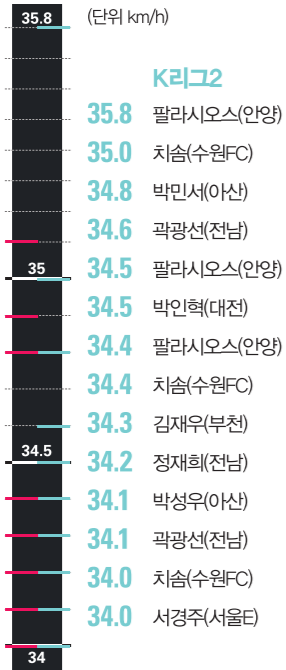
FITNESS

속도와 체력이 경기를 지배한다

K리그는 2019시즌부터 GPS 시스템을 활용한 피지컬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속도왕과 체력왕의 이름은 익숙한 듯 낯설다. 그동안 직관적으로 인정했던 인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K리그 속도왕은 누구?

현대 축구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속도와 체력이다. 2018-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30km/h 주파 기록이 696회나 나왔다는 사실은 속도전의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최고 속도를 낸 선수는 완델손(K리그1)과 팔라시오스(K리그2)였다. 개인 기술이 좋고 돌파에 가속이 붙는 스타일이다. 고속 스프린트 랭킹에 각각 세 차례 이름을 올린 것도 공통점이다. 특히 팔라시오스 기록 중 두 개는 후반 20분 후에 나왔다.



뽀 거리

뽀 거리는 흔히 활동량과 같은 개념으로 통용된다. 뽀 거리가 승률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이 뽀수록 공격 및 수비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팔로세비치(포항)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동량이 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수다. 평균 12km를 기록한 그는 특히 울산과 최종전에서 13km에 달하는 활동량을 기록했다. 뽀 거리 랭킹에 가장 많은 선수가 포함된 팀은 전북(4명)이었다. 거의 매 경기 중원 싸움의 주도권을 쥌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지점에서 설명된다. 물론 리그 특성과 상대팀, 상황 등 변수는 고려해야 한다. 연령별 대표팀 주치의를 경험했던 정태석 박사는 "공격수가 고강도 뽀거리 상위에 있을 때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PL 번리전에서 70미터 드리블 후 골을 넣은 손흥민의 경우 뽀거리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수비수가 고강도 뽀거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면 팀이 수세에 몰려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그만큼 많았다고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일수록 역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뽀 거리나 스프린트 상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랭킹과 숫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이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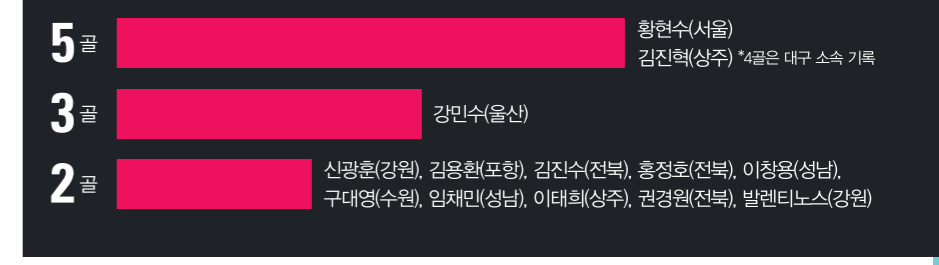
뽀 거리 평균 (단위: 미터)			
K리그1		K리그2	
팔로세비치(포항)	12,222	박진섭(안산)	11,764
임선영(전북)	11,965	김영남(부천)	11,495
정승원(대구)	11,712	김민균(서울E)	11,370
공민현(성남)	11,621	김동진(아산)	11,331
손준호(전북)	11,590	유정원(서울E)	11,251
이명주(서울)	11,550	김도혁(아산)	11,226
김준범(경남)	11,385	정재희(전남)	11,192
지연혁(인천)	11,349	황재훈(대전)	11,151
정훈성(인천)	11,326	박민규(대전)	11,138
정재용(포항)	11,253	김상원(안양)	11,085
최영준(포항)	11,224	맹성웅(안양)	11,062
김승대(전북)	11,179	김윤도(부천)	11,059
서보민(성남)	11,095	김한솔(부천)	11,038
신형민(전북)	11,058	여봉훈(광주)	11,007
김현성(성남)	10,981	안태현(부천)	10,961



골 넣는 수비수

축구는 의외성이 많은 스포츠다. 2019 시즌 의외성은 수비수들의 득점력에 있었다. 32명이 골맛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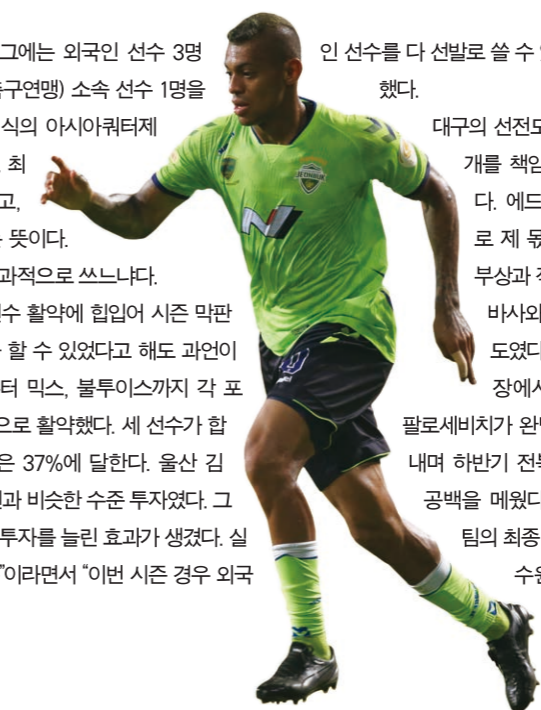
2019시즌 특징은 수비수들의 인상 깊은 득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개막전부터 멀티골을 신고한 서울 황현수는 올 시즌 총 5득점을 올렸다. 공격수 출신으로 공중볼 경합에 일가견이 있는 황현수는 개인 최다 골을 올 시즌 경신(기존 2017시즌, 4골)했다. 팀 내 득점은 4위에 해당한다. 김진혁 역시 임대 전 대구에서 넣은 4골 포함해 5골을 터트렸다. 울산 강민수도 3골을 뽑아냈다. 전체적으로는 32명이 득점을 올렸다. 2골을 기록한 선수는 10명, 그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3명이다.



외국인 선수가 미치는 영향

K리그는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 그들이 전력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었는지는 팀 성적과 관련성이 결코 적지 않다.

2009년부터 K리그에는 외국인 선수 3명에 AFC(아시아축구연맹) 소속 선수 1명을 추가하는 3+1 형식의 아시아쿼터제가 도입되어 있다. 최대 4명을 보유하고, 기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다. 울산은 외국인 선수 활약에 힘입어 시즌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니오부터 믹스, 볼투이스까지 각 포지션에서 주전급으로 활약했다. 세 선수가 합작한 득점(26골)은 37%에 달한다. 울산 김광국 단장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 투자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자를 늘린 효과가 생겼다. 실패가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시즌 경우 외국 선수들을 다 선발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의 선전도 홀로 공격포인트 25개를 책임진 세징야 활약이 컸다. 에드가도 11득점 4도움으로 제 몫 이상을 해냈다. 각각 부상과 적응 문제로 부진한 츠바사와 히우두를 대체할 정도로 에드가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완델손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하반기 전복으로 이적한 김승대 공백을 메웠다. 강등권을 걱정하던 팀의 최종 성적이 4위다. 수원은 아시아쿼터로 영



입한 타깃트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며 리그 8위, FA컵 우승이라는 결과를 냈다. 반면 전북은 15경기 이상 뽀 선수가 로페즈뿐이었다. 로페즈 다음으로 많이 출전한 이비니가 13경기다. 그마저도 교체 11경기였다. 전북이 힘겨운 우승 경쟁을 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기용 숫자가 다는 아니다. 제주는 네 선수가 15경기 이상 경기에 나섰다. 효일이 떨어졌다.

K리그1 15경기 이상 출전 외국인 선수		
구단명	명	선수
전북	1	로페즈
울산	3	주니오, 믹스, 볼투이스
서울	3	일리바예프, 오스마르, 페사치
포항	3	완델손,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대구	2	세징야, 에드가
강원	2	발렌티노스, 제리치
상주	-	
수원	3	타깃트, 데얀, 바그닝요
성남	2	에델, 마티아스
인천	2	무고사, 부노자
경남	2	쿠니모토, 룩
제주	4	마그노, 아길라르, 알렉스, 피아구

포메이션을 보면 트렌드가 보인다

K LEAGUE 1

포메이션을 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다. 2019년 K리그는 '백스리(back3)' 시스템을 사랑했다. 전통적인 수비 전술이라기보다 백스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을 추구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다. 압박이 치열해지면 이를 뚫기 위한 공격 전술도 세밀해진다. 그 결과는 이렇다.

- 이 장에서 표기한 승률은 주 포메이션을 활용했을 때의 승률을 의미함
- 포메이션 데이터는 킥오프를 기준으로 함

전북현대
주 포메이션 4-3-3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81.3%**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0	1
4-1-4-1	2	3	1
4-2-3-1	7	4	1
4-3-3	10	6	0
4-4-2	1	0	0

울산현대
주 포메이션 4-2-3-1 (19회)

주 포메이션 승률 **86.8%**

포메이션	승	무	패
4-1-4-1	3	1	2
4-2-3-1	15	3	1
4-3-3	1	1	0
4-4-2	4	5	2

상주상무
주 포메이션 3-5-2 (26회)

주 포메이션 승률 **50%**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5	0	5
3-5-2	10	6	10
4-3-3	1	1	0

수원삼성
주 포메이션 3-4-3 (19회)

주 포메이션 승률 **50%**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5	9	5
3-5-2	5	3	5
4-1-4-1	0	0	1
4-2-3-1	2	0	2
4-4-2	0	0	1

FC서울
주 포메이션 3-5-2 (38회)

주 포메이션 승률 **53.9%**

포메이션	승	무	패
3-5-2	15	11	12

포항스틸러스
주 포메이션 4-2-3-1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52.5%**

포메이션	승	무	패
4-1-4-1	2	2	1
4-2-3-1	8	5	7
4-3-3	4	0	2
4-4-2	2	1	4

성남FC
주 포메이션 3-4-3 (22회)

주 포메이션 승률 **45.5%**

포메이션	승	무	패
3-3-3-1	1	0	1
3-4-3	7	6	9
3-5-2	4	3	7

인천유나이티드
주 포메이션 4-2-3-1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43.8%**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0	0	1
4-1-4-1	1	1	1
4-2-3-1	4	6	6
4-3-3	0	1	4
4-4-2	2	5	6

대구FC
주 포메이션 3-4-3 (29회)

주 포메이션 승률 **53.4%**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9	13	7
3-5-2	4	3	2

강원FC
주 포메이션 3-4-3 (22회)

주 포메이션 승률 **52.3%**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1	1	10
3-5-2	1	1	1
4-3-3	2	4	5
4-4-2	0	1	1

경남FC
주 포메이션 3-4-3 (14회)
4-4-2 (14회)

주 포메이션 승률 **32.1%** **35.7%**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3	3	8
3-5-2	0	3	0
4-2-3-1	1	3	3
4-4-2	2	6	6

제주유나이티드
주 포메이션 4-2-3-1 (17회)

주 포메이션 승률 **41.1%**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0	0	5
3-5-2	0	2	3
4-1-4-1	0	2	0
4-2-3-1	5	4	8
4-3-3	0	1	3
4-4-2	0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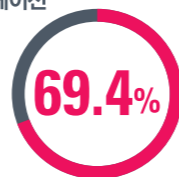


K LEAGUE 2

광주FC
주 포메이션 4-3-3 (18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0	1
3-5-2	2	0	0
4-1-4-1	0	2	0
4-2-3-1	6	0	1
4-3-3	9	7	2
4-4-2	2	1	1

대구발 바람이 불다



K리그 시즌 총 관중이 7년 만에 230만 명을 넘어섰다. 평균 관중은 8,000명을 돌파했다. 변화의 중심엔 DGB대구은행파크를 새로 맞은 대구FC가 있었다.

2019시즌 K리그에 지난해 대비 51.3% 많은 관중이 모였다. K리그1, K리그2,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경기장을 찾은 관중이 총 237만6,924명에 달한다. 당초 목표 230만 명은 초과 달성했다. 시즌 총 관중이 230만 명을 돌파한 건 승강제 도입 첫 시즌이던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흥행을 유도하는 여러 요소들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흥미로운 순위 경쟁 구도와 예측 불가능한 경기는 흥행을 이끄는 동력이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은 예년에 비해 노출도가 높았다. 올 시즌부터 경기 일자자와 시간대를 분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치데이가 2018시즌 67경기에서 2019시즌 88일로 총 21일 늘었다. 경기 시간(K리그1 경기가 1경기 이상 치러지고 있는 시간)도 210시간에서 256시간으로 총 45시간이 증가했다. 올 시즌 K리그 흥행은 소수 인기 구단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닌 K리그 전반적인 인기 상승으로 볼 수 있다. 22개 구단 가운데 21개 구단이 관중 증가를 기록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DGB대구은행

파크와 대구의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다. 대구는 K리그 흥행의 핵심이었다. 새로 개장한 DGB파크가 연이어 화제를 모았고, 특유의 '쿵쿵골' 응원과 마스코트 리카까지 연이어 터졌다. 그 결과 9번 매진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전년 대비 관중 증가는 무려 300%가 넘었다. 흥행의 바람은 대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원정팀 대구로 홍보를 한다"고 타 구단 관계자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대구를 보기 위해 원정을 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구 상대한 팀들의 관중수가 2018시즌 대비 올 시즌 여지없이 증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K리그2로 눈을 돌려보면 비슷한 사례를 FC안양에서 찾을 수 있다. 안양은 전년 대비 206.9% 관중이 늘었다. 창단 최초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가변석 설치가 그 이유로 꼽힌다. 관전 시야와 경기장 인프라가 관중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다.

2,376,924

2019시즌 K리그1, K리그2 누적 관중 합계(*승강 플레이오프 제외). 시즌 총 누적 관중이 230만 명을 넘은 것은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최초다.

8,013

2019시즌 K리그 경기당 평균 관중 수. 2013년 승강제 출범 이후 최초로 K리그 경기당 평균 관중 8,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47.2% 증가한 수치다.

305.1

2019시즌 가장 눈에 띄는 관중 증가를 보여준 대구FC의 작년 대비 관중 증가율. K리그 평균 관중 증가 비율이 147.2%였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수치다.

9

DGB대구은행파크 매진 횟수. 대구 홈경기 21번당 1번씩 표가 동이 난 셈이다. 개장 당시 대구는 개막전, 최종전 포함 3경기 매진을 목표로 했다. 결과적으로 6경기 매진을 초과 달성했다.

부산아이파크
주 포메이션 4-3-3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1	0
3-5-2	2	1	0
4-2-3-1	3	1	1
4-3-3	9	8	3
4-4-2	4	2	1

65%

FC안양
주 포메이션 3-4-3 (21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7	7	7
3-5-2	7	4	5
4-3-3	1	0	0

50%

부천FC1995
주 포메이션 3-4-3 (12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6	4	2
3-5-2	5	4	3
4-1-4-1	1	1	0
4-2-3-1	2	1	2
4-3-3	0	2	3
4-4-2	0	0	1

66.7%

안산그리너스
주 포메이션 3-5-2 (21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4	1	2
3-5-2	7	5	9
4-2-3-1	2	1	2
4-3-3	0	1	1
4-4-2	1	0	0

45.2%

전남드래곤즈
주 포메이션 4-3-3 (12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3	0	3
3-5-2	2	3	1
4-1-4-1	1	4	1
4-2-3-1	1	4	0
4-3-3	4	1	7
4-4-2	2	1	1

37.5%

아산무궁화
주 포메이션 4-3-3 (12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2	4
3-5-2	2	0	2
4-2-3-1	2	3	5
4-3-3	5	2	5
4-4-2	1	1	0

50%

수원FC
주 포메이션 3-5-2 (11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0	0	1
3-5-2	4	3	4
4-1-4-1	1	3	1
4-2-3-1	5	1	5
4-3-3	1	3	3
4-4-2	0	0	1

50%

대전시리즈
주 포메이션 3-4-3 (10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4	5
3-5-2	1	1	1
4-1-4-1	0	1	3
4-2-3-1	4	0	2
4-3-3	2	2	3
4-4-2	0	3	3

30%

서울이랜드
주 포메이션 4-2-3-1 (13회)

주 포메이션 승률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1	3
3-5-2	0	2	1
4-1-4-1	1	0	1
4-2-3-1	2	6	5
4-3-3	1	0	10
4-4-2	0	1	1

38.7%

2019 K리그1 구단별 평균 관중

구단명	총관중	경기수	평균	작년대비증감
서울	324,162	19	17,061	147.5%
전북	278,738	20	13,937	117.1%
대구	203,942	19	10,734	305.1%
울산	184,148	19	9,691	128.8%
수원	164,974	19	8,841	131.8%
인천	161,593	19	8,505	192%
포항	161,134	19	8,481	114.5%
성남	105,950	19	5,576	232.3%
경남	73,646	19	3,876	122.3%
제주	66,741	18	3,708	117.3%
강원	54,331	19	2,860	211.7%
상주	4,4702	19	2,353	178.5%

대구FC 연도별 평균 관중 변화

* ()는 시즌 총관중

2012년	6,830 명	(150,269명)
2013년	6,855 명	(130,251명)
2014년	966 명	(17,383명)
2015년	2,993 명	(62,843명)
2016년	2,712 명	(54,246명)
2017년	3,326 명	(63,186명)
2018년	3,518 명	(66,837명)
2019년	10,734 명	(203,942명)

*2018시즌부터 유료관중 기준으로 집계

03 ANALYSIS

2019년 K리그에서는 모두 593골이 터졌다. 오픈플레이에서 432골, 세트피스에서 161골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약속된 플레이'에 의한 득점 기록은 늘었다(2018년 143골). 득점 패턴부터 포지션별 공헌도 및 기여도 등 다양한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GOAL PATTERN

골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난 시즌보다 득점 숫자는 줄었다. 우승 경쟁과 잔류 전쟁이 유례없는 구도로 벌어지면서 지지 않는 승부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전'이나 '극장' 같은 수식어로 설명되는 경기가 많았다. 막판 득점 증가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90분 이후 득점 기록이 지난 시즌 40골에서 올해 52골로 늘었다.

올해 K리그1에서는 모두 593골이 나왔다. 지난해 620골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꽤 크다. 팀별로 비교해보면 경남과 인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경남은 지난해 59골에서 올해 43골로 무려 16골이 빠졌고, 인천은 지난해 55골에서 이번 시즌 33골로 22골 감소했다. 두 팀 모두 주포 부재를 메우지 못했다. 경남은 팀 전력의 절반으로 평가받던 말경의 그림자가 컸다. 지난해엔 말경 홀로 26골을 책임졌다. 이번 시즌 팀 내 최다득점자가 시즌 중반이 적었던 제리치라는 사실이 의미 심장하다. 제리치는 9골을 넣었다. 제리치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김승준(6골)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9골을 넣었던 무고사가 올해에도 14골로 어느 정도 제 몫을 했다. 그러나 파트너들의 득점 활약에서 큰 차이가 생겼다. 지난해엔 문선민(14골)이 보조를 맞췄지만, 이번엔 팀내 득점 2위는 김호남이다. 4골이라는 기록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지만, 김호남 역시 하반기에 합류한 선수라는 점을 떠올리면 기존 자원들의 결정력에 심각한 약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대별로는 전반보다 후반 득점이 많았다. 후반 시작 15분 간(109골), 후반 막판 15분 사이(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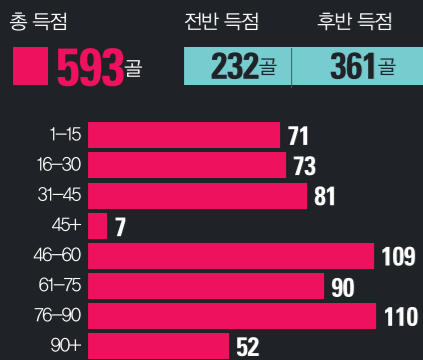
골)에 많은 골이 나왔다. 팀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후반 득점 비율(70%)이 가장 높았다. 포항(69%)과 대구(65%)도 후반 득점 비율이 전반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대구는 후반에 터진 30골 중 19골이 75분 이후에 집중됐다. 경기 막판 비기거나 역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산 역시 막판에 많은 골을 쏟아냈다.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지만, 특히 75분 이후에 20골이나 기록했다.

오픈플레이로 만든 골은 모두 432골이다. 일반 공격과 역습 공격으로 구분하면 리그 평균 68대32 비율로 확인된다. 역습에 의한 득점이 가장 많았던 팀은 울산(25골, 46%)이다. 김인성, 김태환, 황일수, 이근호, 신진호, 이근호 등 주력이 좋고 볼 운반에 능한 이들이 많다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했다. 김보경과 믹스의 존재도 컸다. 팀의 공격 속도를 높이는 볼 배급이 이뤄졌다. 대구 역시 역습 공격에 의한 득점 비율이 41%(13골)로 높은 편이었다.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가 자주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공격에서 많은 골을 만든 팀은 전북(40골)과 강원(28골)이다. 볼 소유와 패스, 세컨드 볼 장악에 의한 공격과 득점을 추구한 팀 특성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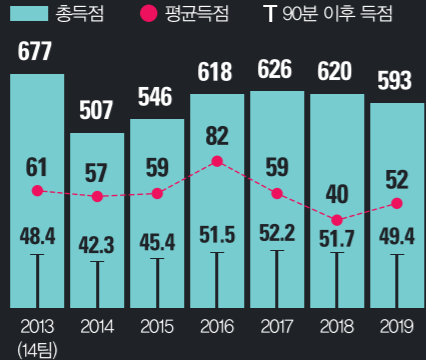
득점의 공격 방향 빈도는 왼쪽(중앙)오른쪽 순으로 나타났다. 왼쪽으로 득점이 편중된 팀은 포항이었다. 오픈플레이 득점(37골)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8골이 왼쪽에서 나왔다. 측면을 타고 골을 쓸어 담던 완델손의 존재감이 이렇게 확인된다. 전통적으로 좌측면 공격에 강점을 보이던 수원 역시 오픈플레이 득점의 44%가 왼쪽에서 나왔다. 중앙 공격 비율(41%)도 그에 못지 않았다. 홍철, 염기훈 등의 활약에다 K리그1 득점왕에 오른 타गत, 중앙으로 자리를 이동한 김민우 등의 지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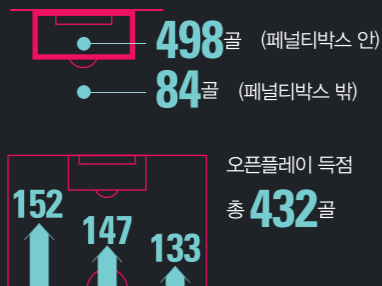
K리그1 시간대별 득점 분포



시즌별 득점 추이



득점 지역 및 공격 방향



41

극장전을 기대한다면 대구 경기를 추천한다. 대구는 경기 막판 가장 많은 골이 터지는 팀이다. 추가시간을 포함해 후반 30분 이후 쏟아진 골이 19골이다. 팀 득점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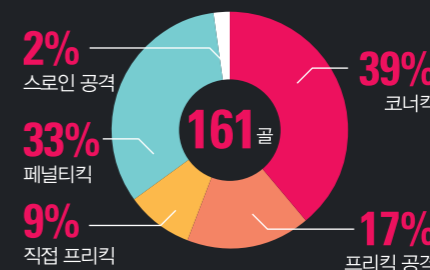
이번 시즌 K리그1 228경기 중 무득점 무승부는 21경기였다. 지난 시즌(23경기)에 비해 2경기 감소했다.

득점 상황에서 공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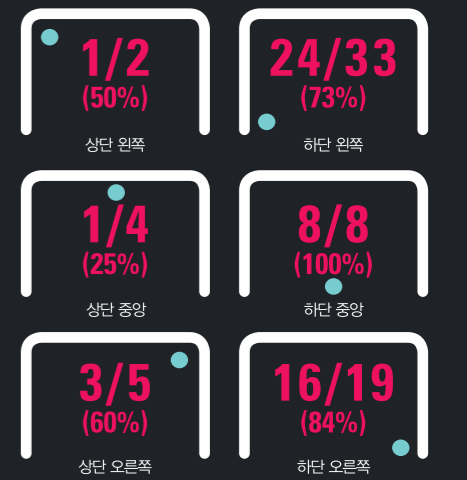


분산 효과로 이어진 셈이다. 중앙 공격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은 대구였다. 오픈플레이 득점(32골) 중 무려 19골이 중앙에서 나왔다.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정승원 등 침투와 연계, 솔로 플레이가 능한 선수들의 활약을 떠올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트플레이로 완성된 골은 모두 161골이다. 코너킥 득점(62골)이 가장 많았고, 페널티킥 득점(53골) 비율도 높았다. 페널티킥과 관련해 흥미로운 통계가 눈에 띈다. 골대를 6분할 했을 때, 상단보다는 하단을 노리는 슈팅의 성공 확률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정면을 향하는 슈팅은 100% 성공률을 보였다.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든 몸을 날린다는 가정에, 키퍼의 담대함이 빛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페널티킥에서 가장 많은 골을 만든 팀은 상주

세트플레이 득점



페널티킥, 하단 중앙으로 치면 성공률이 높다



다. 10번의 기회에서 8골에 성공했다. 페널티킥 기회에서 100% 성공률을 보인 팀은 수원과 강원이다. 각각 5차례, 4차례 기회를 얻어 모두 골로 완성했다.



ATTACKING

공격을 끝낸다

3년 연속 득점왕이 외국인 선수에게 돌아갔다. 주인공은 또 바뀌었다. 수원삼성 타카트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득점 선두에 올랐다.

2019시즌 K리그는 박진감이 넘쳤다. 90분 이후 득점이 2018시즌 40골에서 52골로 12골 증가했다. 득점 없는 경기는 직전 시즌 23경기에서 2경기 줄었다. 경기력 관련 지표 개선과 함께 개성 강한 선수들의 활약은 리그에 몰입도를 높였다. 2019시즌 K리그에 첫 선을 보인 수원삼성 아담 타카트는 빠른 적응을 보이며 유일하게 20골 고지를 점했다. 득점 5걸 가운데 가장 출전 경기수(33)가 적었으나 득점왕을 차지했다. 타카트는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위치 선정 능력과 슈팅 타이밍이 좋다. 공간 침투와 라인 브레이킹에도 강점을 보인다. 공중 볼 경합을 200번 이상 시도한 선수 중 가장 낮은 성공률(27%)을 보였지만 만회할 수 있었던 이유다. 대신 슈팅 107개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슈팅 45개를 골대 안쪽으로 보냈다. 슈팅 100개 이상 때린 선수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유효슈팅 비율이다. 유효슈팅 부문 1위는 울산현대

주니오로 나타났다. 1골 차이로 득점 2위를 차지한 주니오는 슈팅 110개 가운데 53개를 유효슈팅(48%)으로 연결했다. 2개 중 하나는 거의 골대 안쪽으로 향한 셈이다. 적극성에서는 대구FC 세징야를 빼놓을 수 없다. 공격포인트 전체 1위(257개)를 차지한 세징야는 리그 내 가장 많은 슈팅(170개)을 때린 선수다. 드리블도 경기장 평균 7번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파울을 당한 선수(128)이기도 하다.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인 세징야는 경기장 3.5개 피파울을 기록했다. 단연 돋보이는 기록은 팀 내 득점 공헌도다. 세징야의 공헌도는 무려 72%에 달했다. 각각 득점 4위, 5위를 차지한 포항스틸러스 완델손과 인천유나이티드 무고사도 득점 공헌도가 상당했다. 70%대를 기록한 이는 세징야, 완델손, 무고사 뿐이다.

6 골포스트 맞힌 최다 슈팅 횟수. 주인공은 대구 세징야다. 경기당 평균 0.2번 골포스트를 때렸다. 이동국 역시 6개였다. 이동국은 경기당 평균 0.3번에 해당한다. 로페즈, 완델손, 주민규는 그 뒤를 이었다. 올 시즌 골포스트를 4번씩 맞혔다.

571 공격형 경합 시도 1위 로페즈의 기록이다. 로페즈는 그중 252개 성공해 성공률 44%를 보였다. 에드가는 상위 20인 중에 가장 좋은 성공률을 자랑했다. 543번을 시도해 269번을 성공했다. 50%에 해당한다.

327 공중 볼 경합 시도 1위 에드가의 기록. 에드가는 그중 186번 볼을 따내 성공률 57%를 보였다. 경기당 8번 경합에서 이겼다는 의미이다. 박주영, 이광선이 그 뒤를 이었다.

5 페널티킥으로 이어진 파울을 가장 많이 이끌어 낸 선수는 박용지다. 5개를 이끌어냈다. 문선민은 3개로 2위다. 그 뒤로 윤일록, 마그노, 김태환이 각각 2개를 얻었다. K리그2에서는 단연 부산 이동준이다. 이동준은 7개를 얻어 K리그 22개 팀 가운데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얻어난 선수로 나타났다.



득점 TOP 10

1 타카트 | 수원삼성
33경기 20골 1도움
슈팅 99 유효슈팅 52
득점공헌도 61% (90분당 0.96골 기여)

2 주니오 | 울산현대
35경기 19골 5도움
슈팅 107 유효슈팅 74
득점공헌도 45% (90분당 1.01골 기여)

3 세징야 | 대구FC
35경기 15골 10도움
슈팅 170 유효슈팅 82
득점공헌도 72% (90분당 0.91골 기여)

4 완델손 | 포항스틸러스
38경기 15골 9도움
슈팅 87 유효슈팅 44
득점공헌도 71% (90분당 0.9골 기여)

5 무고사 | 인천유나이티드
32경기 14골 4도움
슈팅 104 유효슈팅 51
득점공헌도 70% (90분당 0.74골 기여)

6 제리치 | 경남FC
31경기 13골 1도움
슈팅 65 유효슈팅 34
득점공헌도 27% (90분당 0.71골 기여)

7 김보경 | 울산현대
35경기 13골 9도움
슈팅 42 유효슈팅 29
득점공헌도 59% (90분당 1.18골 기여)

8 박용지 | 상주상무
36경기 12골 3도움
슈팅 55 유효슈팅 32
득점공헌도 50% (90분당 0.82골 기여)

9 에드가 | 대구FC
24경기 11골 4도움
슈팅 75 유효슈팅 33
득점공헌도 41% (90분당 0.8골 기여)

10 윤일록 | 제주유나이티드
34경기 11골 3도움
슈팅 77 유효슈팅 47
득점공헌도 59% (90분당 0.78골 기여)

PLAYMAKING

기회를 창출하다

순간의 선택이 경기 흐름을 뒤튼다. 그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 메이커가 중요한 이유다. 2019 K리그1에는 대구FC 세징야와 울산현대 김보경이 돋보였다.

2019시즌 K리그 핵심 키워드는 점유하는 축구다. 볼 점유율(58%) 1위, 전체 패스 1위(경기당 572회) 강원이 전술 흐름에 트렌드로 자리매김했고, 결과적으로 우승은 공격적인 볼 점유율 1위(65%)를 기록한 전북이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 유무는 중요했다. 울산 김보경이 그 예다. MVP를 차지한 김보경은 울산 공격의 핵심이었다. 팀 득점 관여도가 60%에 달한다. 키패스 78개로 울산에서 가장 많이 기록했고, 드리블(104회) 역시 1위로 나타났다. 울산이 자랑하는 빠른 측면을 살리는 동시에 직접

공격 가담해 상대를 교란시키기도 했다. 공격 시도도 340번으로 주니오에 이은 팀 내 2위다. 90분당 10번 시도, 10분마다 1번씩은 공격에 임했다는 뜻이다. 데드볼 상황에서도 위협적이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이 코너킥을 시도하며, 가장 높은 정확도(48%)를 자랑했다. 울산이 공격적인 점유율 최하위(경기당 97회)를 기록하면서도 득점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김보경에게 있다. 대구의 사상 첫 파이널A 진입을 도운 대구 세징야도 흐름을 바꾸는 선수였다. 키패스 부문 1위(100)가 바로 세징야다. 세징야는 유일하게 60%를 넘는 성공률을 보였다. 빠른 김대원과 많이 뛰는 정

승원 등 동료들과 시너지는 전력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 문선민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북 입단 첫째, 문선민은 전매특허인 스피드를 자랑하며 10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전북에서 10-10 클럽에 가입한 국내 선수가 나온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포항 완델손은 팀 득점에 무려 71%나 관여하며 리그 공격포인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전북 로페즈는 공격형 경합 시도 1위(571회)로 외국인 선수 활약이 미미했던 전북에서 일당백 활약을 했다.



키패스

1 대구 세징야	62	100	62%
2 울산 김보경	45	78	58%
3 포항 완델손	38	69	55%
4 전북 로페즈	38	66	58%
5 경남 쿠니모토	28	64	44%
6 제주 아길라르	33	63	52%
7 대구 김대원	32	61	52%
8 울산 주니오	30	60	50%
9 인천 무고사	23	57	40%
10 전북 김승대	31	56	55%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

1 대구 세징야	159	297	54%
2 서울 박주영	130	268	49%
3 수원 홍철	110	259	42%
4 경남 쿠니모토	90	230	39%
5 전북 김진수	123	229	54%
6 제주 윤빛가람	92	222	41%
7 성남 서보민	100	189	53%
8 포항 완델손	84	189	44%
9 대구 김대원	80	175	46%
10 울산 김보경	88	173	51%

■ 성공횟수 ■ 시도횟수 (%) 성공률

2822

패스 시도 1위 강원FC 한국영의 기록. 그중 2608번을 성공했다. 정확도는 92%를 보였다. 2위는 2318번을 시도한 제주 윤빛가람으로 나타났다. 3위는 강원 신광훈(2156)이다. 강원표 패스 축구를 읽을 수 있다.

41

득점 공격의 플레이 1위 김보경의 기록. 득점 공격의 플레이란 골이 발생하기까지 패스와 크로스 등의 플레이를 의미한다. 김보경은 울산현대 득점의 58%에 관여했다.

120

크로스 시도 1위 수원 홍철이 기록한 크로스 횟수. 31번을 정확히 보내 성공률은 26%에 달한다. 2위는 전북 로페즈다. 118번 시도해 29회 성공했다. 그 뒤는 울산 김태환, 서울 고광민, 포항 심상민이 따랐다.

170

상대편 페널티 박스로 보내는 코너킥과 프리킥 부문 1위를 차지한 서울 박주영의 기록. 79회 성공해 성공률은 46%다. 대구 세징야는 164번 시도해 횟수에서는 박주영에 밀렸으나, 성공률이 57%로 상위 10명 가운데 단연 1위였다.

248

드리블 시도 1위 대구 세징야의 기록. 세징야는 성공률 60%(149번 성공)를 보였다. 경기당 7번 시도해 4.1번 성공한 셈이다. 그 뒤는 포항 완델손, 전북 로페즈, 문선민 순이다.

753

포항 완델손이 기록한 올 시즌 경합 시도 횟수. 경합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완델손이다. 그는 357회 경합에서 이겨 성공률 47%를 보였다. 전북 로페즈도 732회 경합했다. 적극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도움 TOP 10

1 문선민 | 전북현대
32경기 10도움 10골
키패스 52 키패스성공률 73%
득점공격의 플레이 28 (39%)

2 세징야 | 대구FC
35경기 10도움 15골
키패스 100 키패스성공률 62%
득점공격의 플레이 33 (72%)

3 김보경 | 울산현대
35경기 9도움 13골
키패스 78 키패스성공률 58%
득점공격의 플레이 41 (58%)

4 완델손 | 포항스틸러스
38경기 9도움 15골
키패스 69 키패스성공률 55%
득점공격의 플레이 35 (71%)

5 김승대 | 전북현대
31경기 8도움 4골
키패스 56 키패스성공률 55%
득점공격의 플레이 16 (37%)

6 사리치 | 수원삼성
12경기 7도움 1골
키패스 17 키패스성공률 59%
득점공격의 플레이 11 (24%)

7 김태환 | 울산현대
30경기 7도움 2골
키패스 40 키패스성공률 60%
득점공격의 플레이 17 (25%)

8 박주영 | FC서울
35경기 7도움 10골
키패스 54 키패스성공률 63%
득점공격의 플레이 30 (57%)

9 로페즈 | 전북현대
36경기 7도움 11골
키패스 66 키패스성공률 58%
득점공격의 플레이 30 (42%)

10 이영재 | 강원FC
24경기 6도움 8골
키패스 27 키패스성공률 59%
득점공격의 플레이 19 (34%)



HARDWORKING

끊임없이 부딪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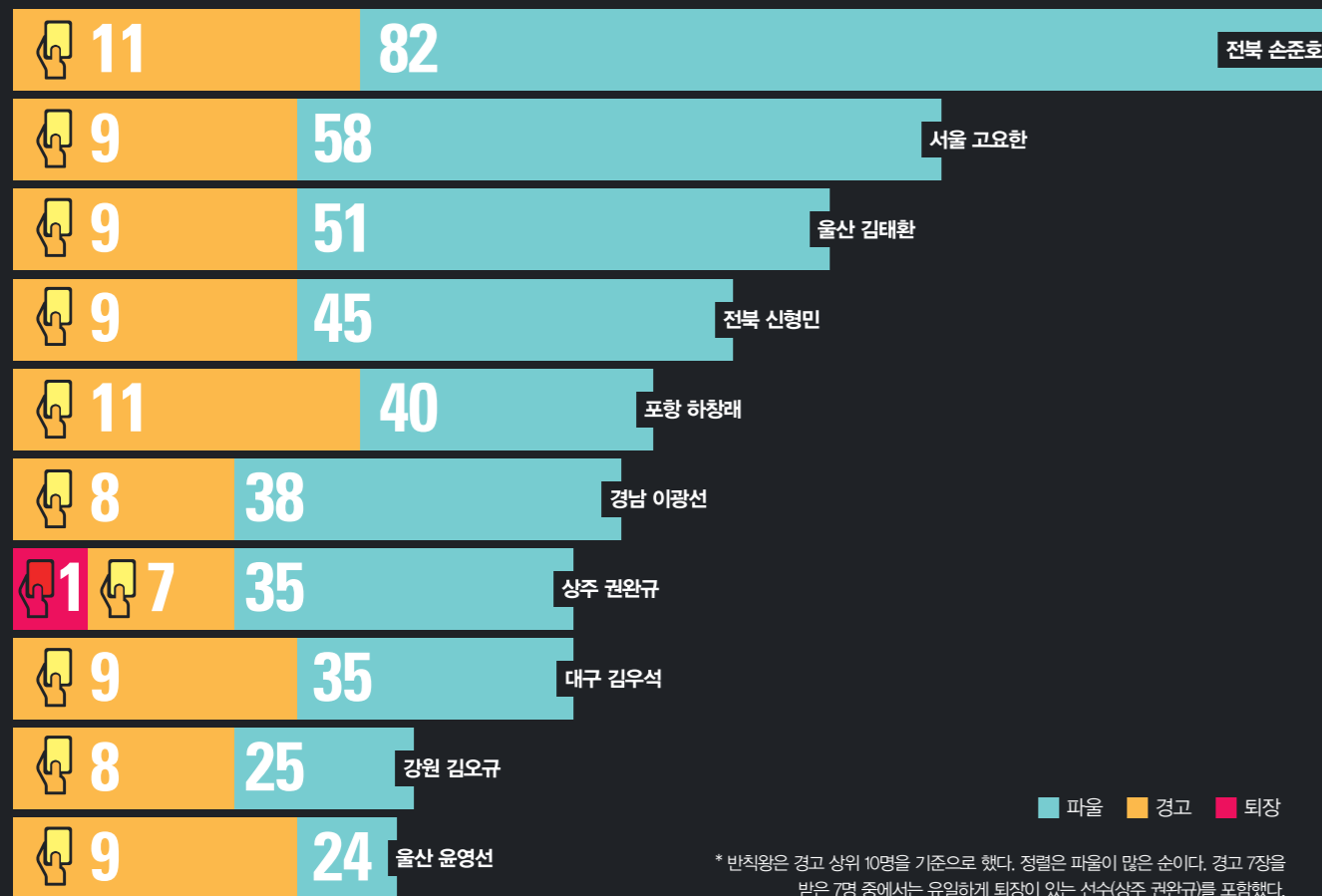
축구는 수적 우위를 잡하기 위한 싸움이다. 공간을 지배하기 위한 중원 대결은 늘 치열하다. 2019시즌은 최고의 '전사'를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중원은 힘과 힘의 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합에서 이기지 못하면 흐름이 기운다. 공격진이 도와주면, 그 과정에서 대형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미드필드에서 지배가 중요한 이유이자 적극성을 겸비한 선수들이 필요한 이유다. 2019시즌 하드 워커로 눈에 띄는 이름은 전북 손준호, 강원 한국영, 울산 박용우 등이다. 손준호는 전체 경합(505), 수비형 경합(293), 땅볼 경합(414), 태클 시도(181), 프리볼 잡기(242) 등 부딪혀야 하는 부문 랭킹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응, 홍정호, 로페즈, 김민혁까지 주고받은 패스가 각각 200번이 넘는 정도로 공수에 연결고리 역할에도

충실했다. 무엇보다 손준호의 장점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박스 투 박스 유형이라는 점이다. 올 시즌 역시 팀득점 43%에 기여하는 상당한 공격성을 보였다. 90분 당 1골씩 관여하는 셈이다. 다만 카드 관리는 보다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이터 유형인 그는 3년 연속 리그 최다 파울을 범했다. 강원 축구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영은 리그 최다 패스(2822)를 기록했다. 성공률은 92%로 리그 상위 20위 내에서도 단연 1위다. 볼을 소유한 채 경기를 풀어나가는 강원 스타일은 한국영의 패스 정확성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상대 진영에서 프리볼을 잡기 위한 시도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영은 304회로 리그 1위에 올랐다. 울산 박용우는 리그 전체 데이터로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울산 내 기여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내 패스 1위(1781), 팀 내 수비 경합 1위(324), 팀 내 인터셉트 1위(233)가 박용우다. 동료들과 주고받은 패스 횟수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톱5 가운데 1위(김태환-박용우), 2위(박용우-김보경), 4위(박용우-믹스)에 박용우가 포함되었다.

2019시즌 반칙왕



수비형 경합

순위	이름	소속팀	시도	성공	성공률
1	하창래	포항	350	226	65%
2	김우석	대구	339	226	67%
3	최성근	수원	339	194	57%
4	박병현	대구	335	232	69%
5	권완규	상주	334	213	64%

공격형 경합

순위	이름	소속팀	시도	성공	성공률
1	로페즈	전북	571	252	44%
2	에드가	대구	543	269	50%
3	타가트	수원	519	166	32%
4	박주영	서울	511	193	38%
5	완델손	포항	504	221	44%

태클

순위	이름	소속팀	시도	성공	성공률
1	알리바예프	서울	188	88	47%
2	손준호	전북	181	105	58%
3	한국영	강원	178	100	56%
4	최성근	수원	167	104	62%
5	완델손	포항	147	93	63%

프리볼 잡기

순위	이름	소속팀	시도	성공	성공률
1	한국영	강원	304	148	49%
2	이규성	상주	271	103	38%
3	김우석	대구	263	42	16%
4	박용우	울산	246	116	47%
5	신형민	전북	243	123	51%

19 K리그 다이렉트 퇴장 선수 숫자. 19명이 1번씩 레드카드를 받았다. 옐로카드 2회를 받아 퇴장당한 선수는 21명 있었다. 다이렉트 퇴장, 경고 2회 누적 퇴장 모두 경험한 선수는 전북 김진수, 포항 이상기 2명이다. K리그2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16명이다. 최다인 2번을 받은 선수는 광주 펠리페, 안산 빈차쌍코, 안양 최호정 셋이다.

145 경기당 평균 경합 시도가 가장 많았던 대구의 기록. 대구는 그 중 75번 이겨 성공률 52%를 보였다. 리그 평균 성공률(50%)을 웃도는 기록이다. 그 뒤는 전북, 경남, 상주, 강원 순으로 이어졌다.

68 경기당 프리볼 잡기 시도 1위 전북의 기록. 전북은 매 경기 30회 프리볼 소유권을 따냈다. 성공률 44%다. 신형민, 손준호가 버티는 중원의 힘을 엿볼 수 있다. 2위는 서울이 기록했다. 67회 시도해 24번 성공했다.



DEFENDING

위기에서 벗어나다

공격을 잘하는 수비수가 각광받는 시대다. 하지만 수비수의 최고 미덕은 수비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다. 포항스틸러스 하창래는 파이터형 수비수로 2019시즌 우뚝 섰다.

팀 적으로 봤을 땐, 득점하는 것만큼이나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들이 공격 축구를 외치면서도 수비 라인을 내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19시즌 K리그도 강한 수비가 강팀의 조건

중에 포함되었다.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리그 최소 실점 팀이기도 했다. 공격 시도(1위), 역습 시도(공동 2위), 세트피스 공격(1위)에서 공격 지표가 고루 상위권에 오른

동시에 수비 기록도 리그 정상을 유지했다. 상대 진영에서 공을 되찾은 횟수가 경기당 평균 55회로 리그 2위였고, 태클 시도도 경기당 31회로 2위였다. 분당 경합 및 인터셉트는 1위(경기당 9.2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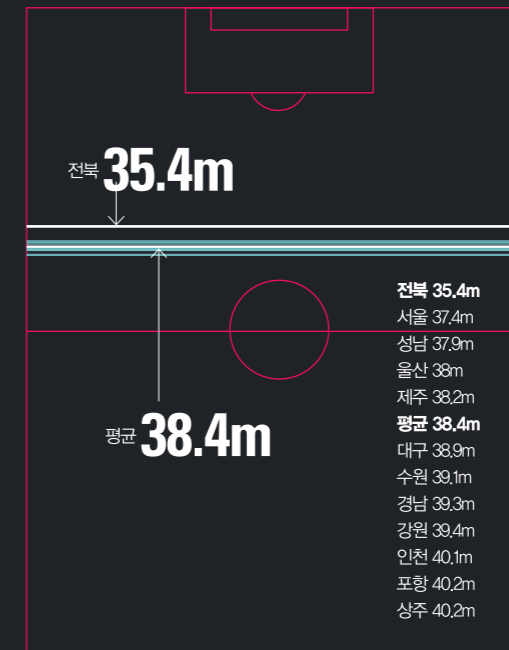
기록했다. 공수 밸런스가 좋았다는 뜻이다. 최소 실점 2위 대구FC 기록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구는 경기당 경합 시도 1위(145회), 경기당 수비형 경합 1위(74회)를 보였다. 성공률은 각각 52%, 58%로 리그 평균 보다 높았다. 탄탄한 수비는 대구가 자랑하는 역습을 더욱 효과적이게 할 수 있게 했다. 선수 면면을 보면 포항 하창래가 두드러진다. 하창래는 수비형 경합 1위에 올랐다. 350회 중에 226

회 이겨 성공률 65%를 보였다. 피지컬을 앞세워 공중볼 경합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79회 시도, 111회 승리로 성공률 62%다. 리그 5위권에 해당하는 성공률이다. 하창래는 상대 진영에서 공도 가장 많이 되찾았다. 총 327회로, 경기당 평균 10번 공을 되찾아왔다. 인터셉트도 262회로 리그 2위에 올랐다. 공격성에서 돋보이는 수비수는 수원 홍철이다. 홍철은 크로스 시도를 120회(경기당 3.9회)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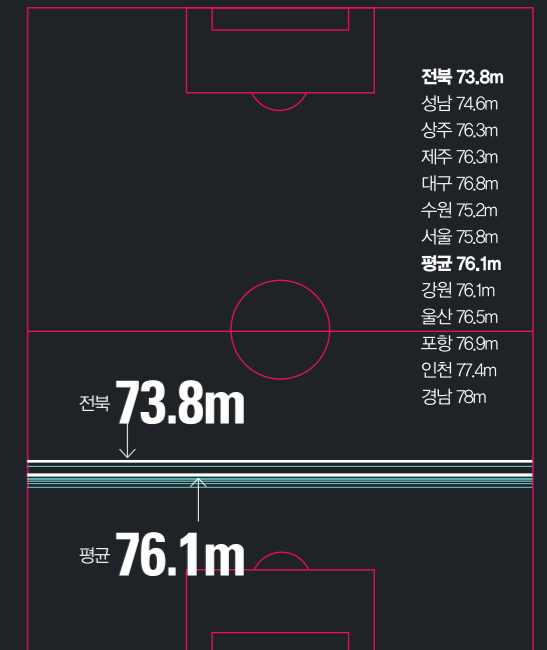
부분 1위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 시도(259회) 역시 수비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상대편 박스로 보내는 코너킥과 프리킥도 수비수 중 1위(120회)를 기록했다.



빠앗긴 위치에서 상대 골대까지



빠앗은 위치에서 상대 골대까지



볼 되찾음

순위	이름	소속팀	시도	경기당 평균
1	하창래	포항	327	10
2	홍정호	전북	311	10
3	김오규	강원	285	9
4	권완규	상주	274	8
5	김우석	대구	273	8

인터셉트

순위	이름	소속팀	시도	경기당 평균
1	김경재	상주	272	9
2	하창래	포항	267	8
3	박용우	울산	233	7
4	김오규	강원	225	7
5	홍정호	전북	219	7

49 경기당 인터셉트 횟수 1위 포항의 기록. 인천, 경남, 서울은 경기당 43회로 공동 2위에 올랐다. 가장 경기당 인터셉트가 적었던 팀은 43회를 기록한 대구다. 리그 평균은 47회다.

56 공을 되찾은 횟수가 가장 많았던 포항의 기록. 그중 상대 진영에서 되찾은 경우가 8번이었다. 전북은 55회로 2위를 기록했다. 12번 상대 진영에서 볼을 다시 얻었다. 공 되찾은 횟수가 가장 적었던 구단은 울산이다.

71 공 빼앗긴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경남의 기록. 자기 진영에서 빼앗긴 것도 15번이나 됐다. 포항은 공을 가장 많이 되찾기도 했지만 많이 빼앗기기도 했다. 70번으로 2위다. 자기 진영에서 내준 횟수는 16번이었다. 리그 평균 13번 보다 많다.

GOALKEEPING

골문을 지키고 공격을 열다

전북현대 송범근에게 2년 차 징크스는 없었다. 극적으로 3연패를 달성한 전북의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대구FC 조현우는 팀의 최소 실점 2위를 가능케 했다.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많아지고 있다. 빠른 판단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2019 K리그에서 현대 골키퍼 요소를 가장 잘 보여준 이는 전북 송범근이다.

올 시즌 전경기 출전한 송범근은 선방 106회를 기록했다. 세 자릿수 선방을 기록한 선수는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나선 골키퍼 중 송범근이 유일하다. 선방률도 64%로 최상위권이다. 경기당 실점은 0.84골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점은 경기당 패스 정확도다. 송범근은 매 경기 22번 패스를 했는데, 정확

도가 88%에 달했다. 공격적인 패스가 13회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수치다.

3회 연속 K리그 베스트 골키퍼에 선정된 조현우는 경기당 실점 0.89골을 기록했다. 20경기 출전 이상 선수 기준 실점률 3위에 해당한다. 선방은 98회 기록했다. 패스 지표는 송범근과 대등하다. 경기당 패스 21개를 시도, 정확도 87%를 보였다. 그 중 비공격적 패스가 8회, 공격적 패스가 12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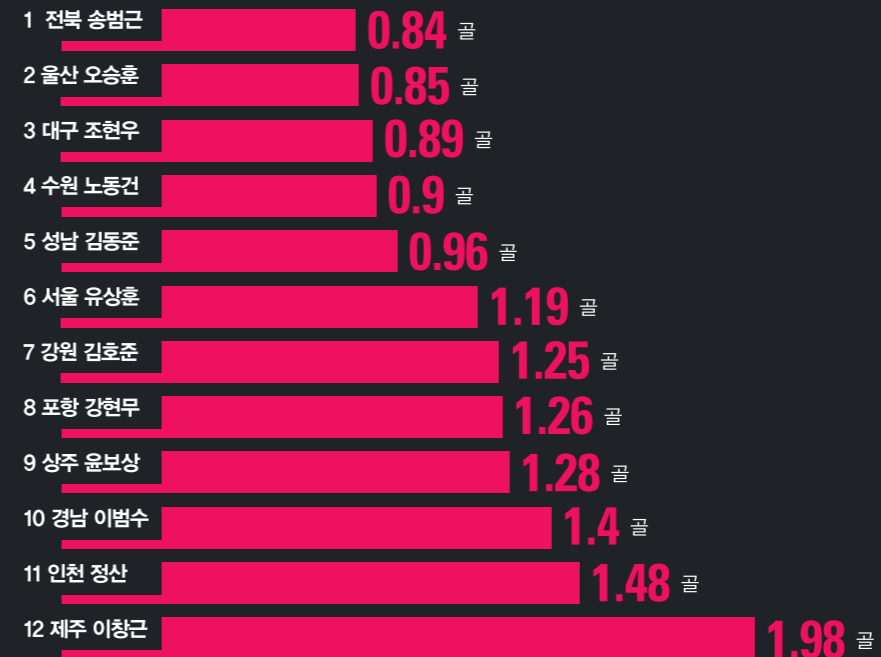
서울 유상훈은 피우효슈팅 169개 가운데 93개를 선방했다. 선방률로는 리그 2위에 해당한다. 수원

노동건은 경기당 실점 0.9골로 선방률 4위를 기록했다.

3년 6개월여만에 K리그에 복귀한 울산 김승규의 패스 기록도 흥미롭다. 김승규는 16경기를 치르는 동안 경기당 패스 35회를 자랑했다. 송범근, 조현우 보다 10개 가까이 많다. 그중 공격적 패스는 17개였다. 패스 성공률은 85%를 보였다. "풀백들이 전진하는 타이밍도 빨라졌다. 김승규가 합류하면서 팀 전체의 플레이가 두세 템포 올라간 셈"이라고 한 울산 김범수 골키퍼 코치 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경기당 실점 20경기 이상 출전 선수 기준



경기당 패스 분석 경기당 실점 상위 12인 기준

이름	소속팀	패스(비율)	비공격형	공격형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송범근	전북	22(88)	9	13	0.69	11	10
오승훈	울산	24(84)	10	14	0.56	12	11
조현우	대구	21(87)	8	12	0.63	11	9
노동건	수원	23(81)	6	18	0.9	7	15
김동준	성남	30(84)	12	19	0.99	14	15
유상훈	서울	21(82)	4.9	16	1.02	6	14
김호준	강원	24(84)	10	14	0.81	13	10
강현무	포항	20(81)	6	14	0.35	9	10
윤보상	상주	21(81)	8	14	0.53	10	11
이범수	경남	22(81)	2.2	9	0.14	3.1	8
정산	인천	22(83)	7	15	0.62	9	13
이창근	제주	22(82)	7	15	0.62	9	12

3684 골키퍼 출장 시간 1위 전북 송범근의 기록. 송범근은 전경기 풀타임 출장했다. 대구 조현우 역시 38경기를 뛰었으나 1번 교체가 있어 2위(3616분)에 올랐다. 3위는 3010분을 뛴 서울 유상훈이다.

15 2019 K리그 최다 클린시트 횟수. 전북 송범근과 대구 조현우가 나란히 15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다. 그 뒤는 성남 김동준과 수원 노동건(이상 12경기)이 따랐다. K리그에서는 광주 윤영국이 13경기 클린시트를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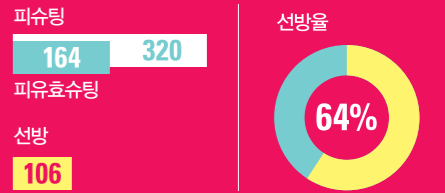
6.37 20경기 이상 뛴 선수 기준 가장 높은 평균 평점을 기록한 조현우의 시즌 평균 평점. 송범근이 6.3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기준을 20경기 이하로 넓히면 1위는 울산 김승규로 바뀐다. 16경기를 소화한 김승규는 6.5점으로 평균 평점이 제일 높았다.

141 인터셉트 및 경합 시도 횟수 1위 송범근의 기록. 그중 136번을 이겨 성공률 96%를 보였다. 조현우는 125번 시도해 116번을 이겼다. 성공률 93%였다. 성남 김동준이 3위다. 120번 시도해 89%를 성공했다. 성공률 1위는 울산 김승규(98%)다. 54번 시도해서 53번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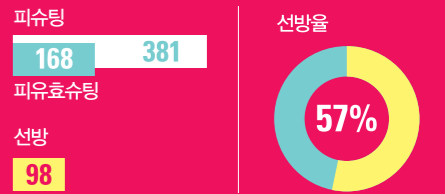
골키퍼 TO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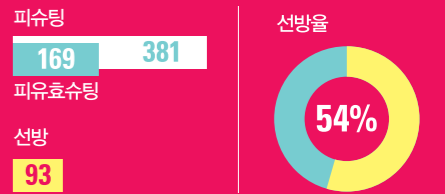
실점 32 (경기당 0.84)
클린시트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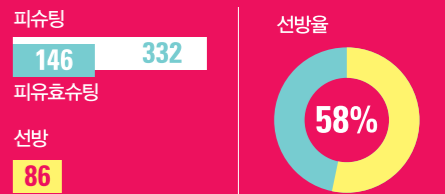
실점 34 (경기당 0.89)
클린시트 15



실점 38 (경기당 1.19)
클린시트 7



실점 26 (경기당 0.9)
클린시트 12



TEAM OF THE YEAR

K LEAGUE 1

2019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를 보는 시선은 감독, 선수, 미디어 간 이견이 크지 않았다. 베스트11에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선수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대구FC와 수원삼성(이상 각 2명)이 이었다. 포항스틸러스는 2013년 이후 6시즌 만에 베스트11 선수를 배출했다. MVP 영예는 김보경이 안았다.

11 최다 주간 베스트11 선정 횟수. 주인공은 포항 완델손이다. 완델손은 3.45경기 당 1번씩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완델손 뒤는 세징야와 김보경이 이었다. 각각 주간 베스트11에 10번 이름을 올렸다.

9 주간 최우수 선수에 가장 많이 선정된 선수는 울산 김보경이다. 주간 최우수 선수를 4.2경기 당 1번씩 차지한 셈이다. 김보경 뒤는 수원 타가트(7번), 포항 완델손(6번)이 이었다.

6.62 가장 높은 시즌 평균 평점은 대구 세징야가 부여받았다. 6.6점을 넘은 선수는 세징야가 유일하다. 울산 김보경은 6.5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부터 5위는 각각 포항 완델손(6.57점), 울산 주니오(6.55점), 전북 문선민(6.39점)으로 나타났다.



BEST XI

GK



조현우
38경기 34실점

반사 신경이 좋은 골키퍼. 대구의 사상 첫 파이널A 진입에 일조했다. GK 주간베스트 최다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K리그 베스트11에 올랐다.

클린시트 141 회
선방 98 회

DF



김태환
30경기 2득점 7도움

돌파 능하고 빠른 측면 수비수. 우승 경쟁을 한 울산의 주축 멤버로 활약하며 개인 통산 첫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크로스 113 회
페널티킥을 얻은 피파들 2 회

DF



홍정호
30경기 2득점

제공력과 몸싸움에 능한 중앙 수비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우승에 기여했다. 알트란 같은 2득점도 보냈다. 베스트11 선정은 9년 만이다.

수비형 경합 313 회
공 되찾음 311 회

DF



이용
20경기 3도움

빠르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자랑하는 측면 수비수.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으나 팀 내 태클 시도 3위, 수비 경합 4위를 기록했다.

크로스 87 회
박스 안으로 패스 172 회

DF



홍철
30경기 1득점 4도움

빠른 발로 오버래핑을 즐기는 측면 수비수. 크로스 시도는 리그 전체 1위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향하는 패스 시도도 리그 3위에 올랐다.

크로스 120 회
박스 안으로 패스 259 회

MF



완델손
38경기 15득점 9도움

스피드와 기술에 날카로운 안발까지 보유한 포항의 공격의 핵심. 몰아치기 능력 갖췄다. 올 시즌 한 경기 공격포인트 5개라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득점 공격의 플레이 35 회
공격형 경합 504 회

MF



문선민
32경기 10득점 10도움

탁월한 스피드를 앞세워 전북 우승에 일조한 공격형 미드필더. 10-10클럽에 가입하며 2019시즌 최다 도움상까지 거머쥐었다.

득점 공격의 플레이 28 회
슈팅 70 회

MF



세징야
35경기 15득점 10도움

스피드, 드리블, 킥력을 두루 갖춘 다재다능한 대구 공격의 핵. 화려한 쇼맨십으로 대구의 흥행을 이끌 한몫했다. 공격포인트 리그 1위 주인공이기도 하다.

키패스 100 회
박스 안으로 패스 297 회

MF



김보경
35경기 13득점 9도움

지능과 시야가 탁월한 울산의 플레이메이커. 올 시즌 울산 경기 운영 중심에 있었다. 임대생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K리그 1 MVP에 올랐다.

득점 공격의 플레이 41 회
키패스 78 회

FW



타가트
33경기 20득점 1도움

피니시 능력이 탁월한 수원의 스트라이커. 공간 침투 이후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 망을 여러 번 열었다. K리그 진출 첫해 득점왕에 올랐다.

슈팅 107 회
공격형 경합 519 회

FW



주니오
35경기 19득점 5도움

간결한 플레이를 즐기는 울산 공격수. 리그 정상급 유효 슈팅(48%)을 바탕으로 득점 2위에 올랐다. 골포스트에 맞은 슈팅이 3번이나 있었다.

득점 공격의 플레이 31 회
슈팅 110 회

TEAM OF THE YEAR

K LEAGUE 2

2019시즌 K리그2 베스트11은 광주FC, 부산아이파크, 안양FC 3파전이었다. 우승을 차지한 광주, 3번째 도전 만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부산, 그리고 창단 최고 성적을 낸 안양이 각각 3명을 배출했다. MVP는 부산 이동준에게 돌아갔다. 이동준은 13골 7도움으로 리그 공격포인트 2위를 기록했다. 득점 관여 1위, 피파울 1위, 키패스 3위 등 지표가 고루 좋았다.

BEST XI



윤평국 26경기 24실점

클린시트 13회
선방 24회



김문환 29경기 2도움

패스 성공률 86%
키패스 34회



닐손주니어 37경기 10득점

태클 192회
인터셉트 330회



아솔마토프 26경기 1득점 15도움

태클 308회
인터셉트 227회



이옴뚝 30경기 5득점 3도움

박스 안으로 패스 248회
크로스 6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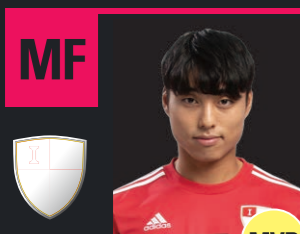
김상원 MF 34경기 6득점 8도움

득점 공격의 플레이 24회
크로스 100회



알렉스 33경기 13득점 5도움

키패스 66회
드리블 181회



이동준 39경기 13득점 7도움

공격 시도 476회
드리블 198회



호물로 34경기 14득점 2도움

키패스 93회
슈팅 110회



조규성 33경기 14득점 4도움

공격 시도 704회
슈팅 90회



치숨 33경기 18득점 1도움

득점 공격의 플레이 26회
키패스 37회

RESULTS 베스트11 이렇게 선정했다

2019시즌 K리그 개인상 후보는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시즌 중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5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600만원 이상 벌금 중징계를 받은 선수와 감독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K리그1		득표수			최종점수	
부문	소속	후보명	감독	선수	미디어	
감독상	포항	김기동	3	4	31	29.78
	전북	모라이스	5	3	32	32.67
	대구	안드레	1	1	22	13.71
	서울	최용수	3	4	16	23.84
	계		12	12	101	100.00
MVP	울산	김보경	5	5	43	42.03
	전북	문선민	3	2	30	24.38
	대구	세정야	3	2	26	22.80
	포항	완델손	1	3	2	10.79
	계		12	12	101	100.00
영플레이어 상	강원	김지현	6	8	52	55.59
	전북	송범근	4	1	26	22.80
	울산	이동경	0	0	17	6.73
	포항	이수빈	2	3	6	14.88
	계		12	12	101	100.00
GK	수원	노동건	1	2	12	12.25
	전북	송범근	3	4	35	31.36
	서울	유상훈	1	1	5	6.98
	대구	조현우	7	5	49	49.41
	계		12	12	101	100.00
DF	울산	강민수	2	1	13	3.16
	상주	권완규	1	3	4	2.90
	전북	김민혁	2	3	35	6.59
	울산	김태환	8	3	52	12.02
	울산	박주호	0	1	17	2.31
	강원	발렌티노스	2	1	11	2.96
	성남	서보민	1	0	14	2.01
	강원	신광훈	1	4	7	3.82
	성남	연제운	0	3	5	2.37
	서울	오스마르	2	2	50	7.45
	전북	이웅	6	7	70	15.06
	대구	정태욱	3	3	28	6.52
	포항	하창래	4	1	7	3.82
	전북	홍정호	7	8	42	13.53
	수원	홍철	7	7	36	12.31
서울	황현수	2	1	13	3.16	
계		48	48	404	100.00	
MF	서울	고요한	2	0	7	1.94
	울산	김보경	7	8	90	18.29
	전북	로페즈	3	3	37	7.41
	전북	문선민	5	8	78	15.85
	울산	믹스	2	1	18	3.66
	대구	세정야	9	10	92	20.98
	전북	손준호	2	2	3	2.80
	서울	알리바예프	0	1	1	0.72
	수원	염기훈	1	3	8	3.29
	포항	완델손	6	5	47	11.53
	제주	윤빛가람	6	3	0	5.63
	울산	이동경	0	0	2	0.20
	포항	이수빈	0	1	2	0.82
	강원	이현식	1	0	0	0.63
	대구	정승원	0	0	8	0.79
강원	한국영	4	3	11	5.46	
계		48	48	404	100.00	
FW	울산	김인성	0	0	4	0.79
	강원	김지현	2	0	3	3.09
	인천	무고사	4	1	19	10.01
	상주	박용지	0	1	0	1.25
	서울	박주영	0	2	9	4.28
	대구	에드가	4	3	8	10.33
	울산	주니오	8	9	74	35.90
	수원	타가트	6	8	85	34.33
	계		24	24	202	100.00

K리그2		득표수			최종점수	
부문	소속	후보명	감독	선수	미디어	
감독상	안양	김형열	1	1	6	9.00
	광주	박진섭	7	8	83	84.22
	부천	송선호	1	0	0	3.33
	부산	조덕제	0	1	1	3.44
계		9	10	90	100.00	
MVP	광주	이솔마토프	3	5	28	37.44
	부산	이동준	5	2	40	40.44
	안양	조규성	0	1	19	11.44
	수원FC	치숨	1	2	3	10.67
계		9	10	90	100.00	
GK	안양	양동원	1	3	15	19.00
	광주	윤평국	6	6	67	67.78
	부천	최철원	1	1	6	9.00
	안산	황인재	1	0	2	4.22
계		9	10	90	100.00	
DF	부천	김한솔	0	0	10	1.11
	부산	김명준	2	0	6	2.33
	부산	김문환	6	4	68	15.56
	안산	김연수	0	3	2	2.47
	부천	닐손주니어	4	6	50	13.39
	부산	수신아르	0	1	20	2.97
	광주	이솔마토프	7	8	73	19.94
	광주	이요뜸	8	6	59	17.72
	안산	이인재	3	1	4	3.69
	대전	이지솔	2	0	9	2.67
	부천	임동혁	0	1	6	1.42
	수원FC	조유민	1	1	7	2.36
	안양	채광훈	1	0	19	2.94
	안산	최명희	1	1	1	1.69
	전남	최효진	0	3	8	3.14
안산	황태현	1	5	18	6.58	
계		36	40	360	100.00	
MF	부천	김윤도	0	1	4	1.19
	안양	김상원	3	3	27	7.75
	전남	김영욱	0	1	6	1.42
	부산	김진규	3	2	31	7.44
	서울E	두아르테	0	1	4	1.19
	광주	두현석	3	0	18	4.50
	부산	박종우	0	1	20	2.97
	안산	박진섭	3	2	4	4.44
	수원FC	백성동	2	1	18	4.42
	부천	안태현	4	1	2	4.31
	안양	알렉스	3	2	41	8.56
	부산	이동준	6	6	69	17.17
	안산	장혁진	1	6	12	6.67
	광주	최준혁	3	4	13	6.94
	전남	한찬희	1	2	23	4.89
부산	호물로	4	7	68	16.14	
계		36	40	360	100.00	
FW	부천	말론	1	0	4	2.56
	아산	오세훈	2	3	16	11.39
	광주	윌리안	1	0	14	4.78
	부산	이정협	1	1	35	10.94
	전남	정재희	2	2	5	7.44
	안양	조규성	3	5	52	24.06
	수원FC	치숨	2	6	35	20.11
안양	팔라시오스	6	3	19	18.72	
계		18	20	180	100.00	

*수원FC 감독 공적으로 투표 불참

04

PROFILES

이 장의 기록은 K리그 정규리그(38경기),
K리그2 정규리그(36경기) 기록을 기준으로 함





TEAM PROFILES K LEAGUE 1

전북현대모터스



정규리그 우승 | 38전 22승13무3패
감독 | 조세 모라이스
모라이스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22	13	3
통산	22	13	3

SUMMARY 대역전 우승 드라마를 썼다. 점유율 기반의 안정과 역습을 추구하며 효율성 높은 축구를 구사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무승부가 많아졌지만 득-실 균형을 유지한 덕에 끝까지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정훈	-	-	-	-	-	-	
	송범근	38	2718	32	106	2	-	
	이재형	-	-	-	-	-	-	
	홍정남	-	-	-	-	-	-	
DF	권경원	13	1180	2	1	6	-	
	김민혁	6	268	-	-	-	-	
	김진수	27	2412	2	4	5	1	
	박원재	1	96	-	-	1	-	
	윤지혁	-	-	-	-	-	-	
	이용	20	1863	-	3	4	-	
	이주용	15	1284	-	3	4	-	
	최철순	18	1378	-	-	6	-	
	홍정호	30	2778	2	-	3	-	
	MF	명준재	5	481	-	-	1	-
		문선민	32	2344	10	10	3	-
		손준호	31	2718	5	3	11	-
		신형민	28	2484	-	-	9	-
이승기		25	1780	4	5	1	-	
이시현		-	-	-	-	-	-	
임선영		22	1539	5	3	-	-	
장윤호		2	83	-	-	-	-	
정혁		13	833	1	2	4	-	
최영준		7	347	-	-	-	-	
한승규		19	909	2	-	3	-	
FW	고무열	6	268	-	-	-	-	
	김승대	11	670	1	1	-	-	
	김신욱	17	1191	9	3	1	-	
	로페즈	36	3033	11	7	5	-	
	아드리아노	1	13	-	-	-	-	
	이근호	2	30	-	-	-	-	
	이동국	33	1628	9	2	2	-	
	이비니	13	479	1	1	-	-	
	이성윤	-	-	-	-	-	-	
	티아고	2	116	-	-	1	-	
	호사	11	696	4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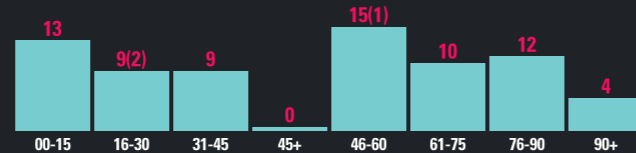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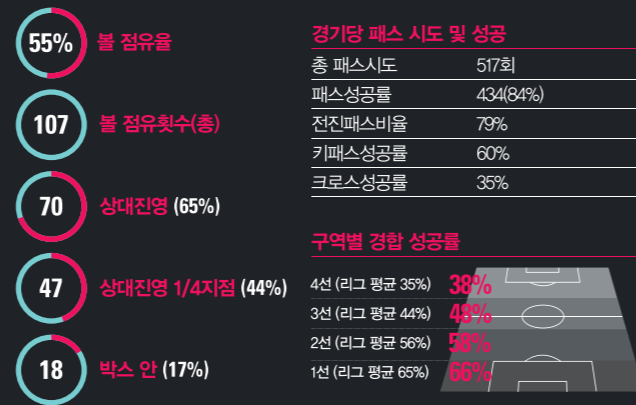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로페즈	11	57	571
	문선민	10	64	336
	김신욱	9	29	28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문선민	10	52
	로페즈	7	66
	이승기	5	29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손준호	1787	1532	86%
	신형민	1583	1380	87%
	홍정호	1528	1362	89%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홍정호	311	66%	291
	김민혁	195	73%	165
	신형민	190	59%	176



TEAM PROFILES K LEAGUE 1

울산현대



정규리그 2위 | 38전 23승10무5패
감독 | 김도훈
김도훈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23	10	5
통산	75	54	51

SUMMARY 우승 경쟁의 풍격을 높였다. 시즌 내내 전북의 독주를 견제하다 정규리그 막판에는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중원 장악과 역습, 마무리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다채로운 패스워크가 돋보였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승규	16	1539	21	59	2	-
	문정인	-	-	-	-	-	-
	조수혁	2	192	1	6	-	-
	오승훈	20	1923	17	63	-	-
DF	김민수	23	2122	3	-	7	-
	김민덕	1	96	-	-	-	-
	김수안	9	669	1	-	3	-
	김창수	9	751	-	-	1	-
	김태현	-	-	-	-	-	-
	데이비스	3	123	-	-	1	-
	박재민	-	-	-	-	-	-
	박주호	23	1821	-	1	5	-
	불투이스	19	1626	1	1	1	-
	윤영선	27	2473	-	-	9	-
	정동호	15	1261	-	-	2	-
	이명재	24	2140	-	3	-	-
	MF	김보경	35	3130	13	3	7
김태환		30	2717	2	7	-	-
김성준		5	77	-	-	-	-
믹스		31	2384	6	2	3	-
박용우		36	2864	-	-	-	-
FW	신진호	24	1630	1	4	5	1
	이동경	25	1188	3	2	4	-
	이상현	5	256	1	-	-	-
	정재용	2	98	-	-	1	-
	김민성	34	2644	9	3	3	-
	박정인	6	279	-	-	-	-
	박하민	1	12	-	-	-	-
FW	이근호	18	757	2	5	1	-
	주니오	35	2784	19	5	3	-
	주민규	28	1413	5	5	-	-
	황일수	24	1143	3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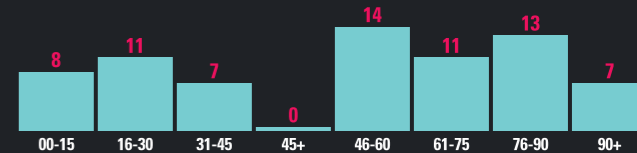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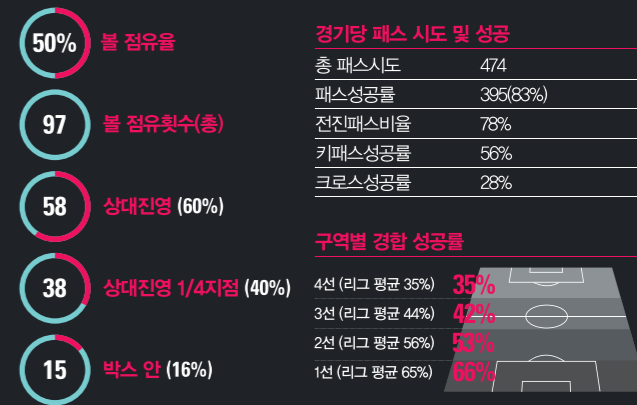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주니오	19	53	443
	김보경	13	21	340
	김민성	9	26	29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김보경	9	78
	김태환	7	40
	이근호	5	29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박용우	1781	1534	86%
	이명재	1392	1131	81%
	김태환	1387	1116	80%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박용우	192	53%	233
	윤영선	167	61%	180
	강민수	141	68%	142



정규리그 3위 | 38전 15승11무12패
감독 | 최용수
최용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5	11	12
통산	119	65	60

SUMMARY 지난해 승강플레이오프까지 내몰렸던 부진을 털고 3위로 크게 뛰어올랐다. 실점 기록은 비수하지만(48실→49실) 득점력(40득→53득)이 개선됐다. 박주영 외에 페시치, 박동진의 득점 활약이 팀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양현빈	7	652	11	19	-	-	
	유상훈	32	3010	38	93	1	-	
DF	김남춘	4	360	-	-	-	-	
	김원균	11	962	-	-	1	-	
	김주성	10	757	-	-	-	1	
	박주영	1	7	-	-	-	-	
	윤종규	29	2443	-	2	1	-	
	이용희	20	1699	-	-	3	-	
	황현수	36	3398	5	3	2	-	
	MF	고광민	35	3274	1	2	4	1
		고요한	35	3269	3	6	9	-
		김원식	19	1496	-	-	2	-
신재원		2	73	-	-	1	-	
알리바예프		35	3122	3	5	5	-	
오스마르		31	2900	4	5	3	-	
이명주		10	908	1	1	3	-	
정원진		16	577	3	2	2	-	
정현철		30	2268	1	-	6	-	
주세종		9	760	1	-	3	-	
FW	하대성	2	11	-	-	-	-	
	황기욱	1	10	-	-	-	-	
	김한길	12	426	-	2	1	-	
	박동진	32	1534	6	3	4	-	
	박주영	35	2969	10	7	2	-	
	윤준태	14	438	1	1	1	-	
	이인규	6	87	1	-	-	-	
	조영욱	18	799	2	1	3	-	
	페시치	25	1920	10	1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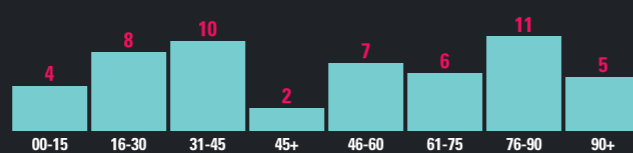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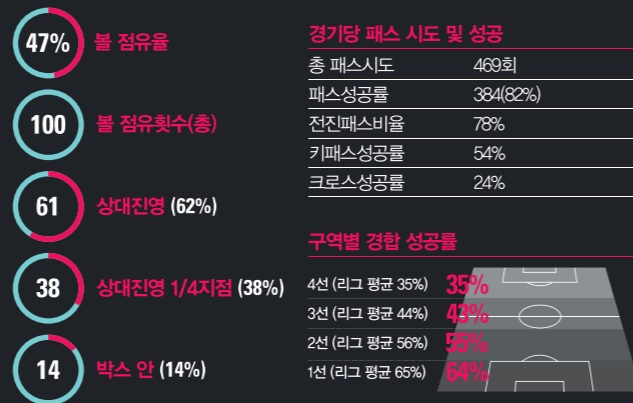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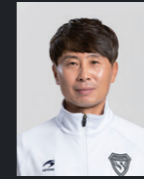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박주영	10	28	511
	페시치	10	27	344
	박동진	6	13	267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박주영	7	54	
	고요한	6	52	
	오스마르	5	21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오스마르	1893	1620	86%
	고요한	1681	1402	83%
	황현수	1613	1353	84%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황현수	250	61%	210
	오스마르	237	61%	200
	정현철	185	58%	199



정규리그 4위 | 38전 16승8무14패
감독 | 최순호, 김기동
김기동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4	7	9
통산	14	7	9

SUMMARY 상대 진영에서 볼 점유율(65%), 볼 소유권 회복, 볼 점유시 분 당 패스 횟수(14.9) 등 공격에 유의미한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점유율과 완델슨을 활용한 역습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하반기 득점력 상승에 힘을 얻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강현무	23	2208	29	64	3	-	
	류원우	15	1439	20	49	-	-	
	이준	-	-	-	-	-	-	
DF	김광석	19	1792	-	-	3	-	
	김용환	35	3131	2	1	2	-	
	민경현	-	-	-	-	-	-	
	박재우	2	173	-	-	-	-	
	배슬기	12	589	1	-	-	-	
	블라단	3	289	-	-	3	-	
	심상민	26	2386	-	1	2	-	
	우찬양	-	-	-	-	-	-	
	이도현	-	-	-	-	-	-	
	이상기	16	1252	-	-	3	1	
	전민광	18	1733	-	-	1	-	
	하창래	31	2901	1	-	11	-	
	MF	유준수	6	385	-	-	-	-
		이석현	16	905	2	-	-	-
		이수빈	28	2204	1	1	5	-
		이승모	2	60	-	-	-	-
		이진현	20	1321	1	2	-	-
일류첸코		18	1408	9	2	5	-	
정재용		30	2681	-	2	1	-	
최영준		14	1208	-	-	2	-	
팔로세비치		16	614	-	1	-	1	
FW		김도형	9	378	-	-	-	-
	김승대	20	1915	3	7	2	-	
	김지민	4	77	1	-	-	-	
	데이비드	9	521	2	1	-	1	
	송민규	27	1652	2	3	1	-	
	심동은	8	474	1	-	-	-	
	완델슨	38	3503	15	9	2	-	
	이광혁	23	1252	2	1	1	-	
최용우	8	262	-	-	-	-		
허용준	15	476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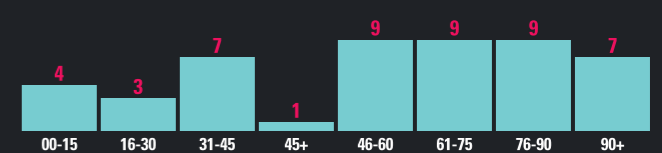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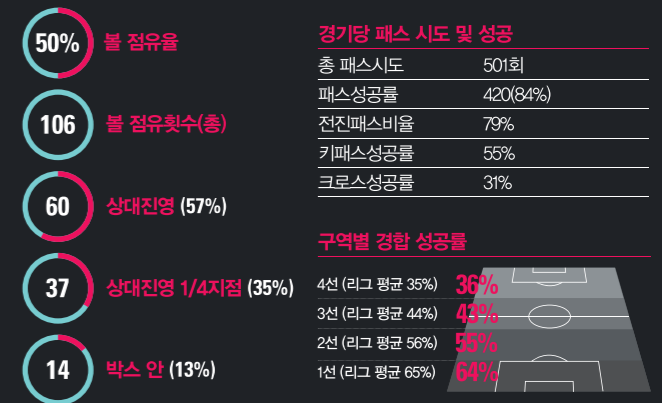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완델슨	15	44	504
	일류첸코	9	21	226
	팔로세비치	5	9	7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완델슨	9	69	
	김승대	7	46	
	팔로세비치	4	23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김용환	2105	1768	84%
	정재용	1676	1436	86%
	심상민	1626	1346	83%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하창래	327	65%	179
	김용환	188	64%	64
	김광석	169	61%	121



대구FC



정규리그 5위 | 38전 13승16무9패
감독 | 안드레
안드레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3	16	9
통산	36	35	31

SUMMARY 홈구장 이전과 함께 폭발적 관중 몰이로 K리그 붐을 이끌었다. 단단한 수비에 빠른 역습으로 승점을 챙겼다. 특히 후반 막판 승부의 결이 달라지는 경기가 많았다. 후반 30분 이후 나온 골이 총 득점의 40% 이상이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준희	-	-	-	-	-	-	
	조현우	38	3616	34	98	2	-	
	최영은	1	65	3	4	2	-	
DF	강윤구	15	1001	-	-	-	-	
	고태규	-	-	-	-	-	-	
	김동진	13	1140	-	-	2	1	
	김우석	35	3269	1	2	9	-	
	김준엽	22	1659	-	1	1	-	
	김진혁	6	423	4	1	1	-	
	김태한	3	287	-	-	1	-	
	박병현	31	2721	-	1	7	-	
	장성원	18	971	-	1	3	-	
	정태욱	27	2380	1	-	3	1	
	한희훈	22	975	-	-	5	-	
	홍정은	16	1516	-	-	3	-	
	MF	고재현	3	181	-	-	1	-
		김선민	12	1105	-	-	3	-
		류재문	21	1153	1	1	4	-
		박현민	15	617	-	-	-	-
		신창무	8	214	1	-	2	-
오후성		8	159	-	1	-	-	
임재혁		-	-	-	-	-	-	
정선호		5	147	-	-	-	-	
조바사		13	1049	1	1	2	-	
황순민		36	2954	3	3	1	-	
FW	김대원	36	2969	4	2	2	1	
	다리오	3	83	-	-	-	-	
	박기동	12	500	1	1	1	-	
	세징야	35	3271	15	10	4	-	
	에드가	24	2148	11	4	4	-	
	전현철	2	16	-	-	-	-	
	정승원	33	2967	3	2	-	-	
	정치인	6	247	-	1	-	-	
	히우두	11	597	-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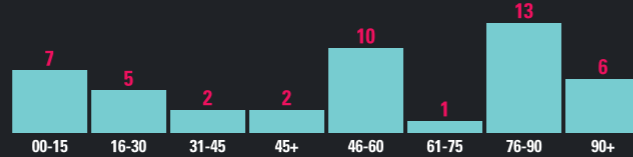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46%** 볼 점유율
- 99** 볼 점유횟수(총)
- 60** 상대진영 (61%)
- 39** 상대진영 1/4지점 (39%)
- 15** 박스 안 (15%)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22회
패스성공률	346(82%)
전진패스비율	77%
키패스성공률	56%
크로스성공률	25%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7%
3선 (리그 평균 44%)	46%
2선 (리그 평균 56%)	57%
1선 (리그 평균 65%)	65%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세징야	15	82	492
	에드가	11	33	543
	김대원	4	37	21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세징야	10	100
	에드가	4	33
	황순민	3	29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김우석	1574	1351	86%
	황순민	1502	1270	85%
	세징야	1395	1107	79%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김우석	273	68%	186
	정태욱	201	73%	158
	박병현	196	69%	148



강원FC



정규리그 6위 | 38전 14승8무16패
감독 | 김병수
김병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4	8	16
통산	26	26	38

SUMMARY 이번 시즌 가장 뚜렷한 색깔을 보인 팀 중 하나다. 상대 골문을 향해 전진하는 패스워크로 관심을 집중 받았다. 점유율, 패스, 세트피스 등 공격의 지표가 되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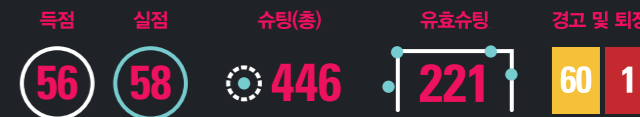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호준	28	2661	35	92	2	-	
	이광연	8	775	19	19	1	-	
	이승규	-	-	-	-	-	-	
	함석민	3	239	4	10	-	-	
	김오규	28	2714	1	1	8	-	
DF	발렌티노스	24	2172	2	1	1	-	
	신광훈	36	3379	2	4	7	-	
	이재익	3	289	-	-	7	-	
	이호인	16	1311	1	1	1	-	
	정승용	29	2118	-	6	6	-	
	한용수	2	179	-	-	-	-	
	MF	강지훈	29	1978	2	-	4	-
		김현욱	31	2118	2	2	-	-
		나카자토	11	844	-	-	-	-
		박창준	13	311	1	1	2	-
오범석		20	1375	-	-	3	-	
윤석영		28	1849	-	1	-	-	
이영재		13	1041	6	5	-	-	
이재권		6	258	-	-	-	1	
이현식		32	2732	6	2	7	-	
정석화		7	658	-	2	-	-	
FW	조재완	17	1514	8	2	1	-	
	조지훈	15	919	-	-	-	-	
	지희수	-	-	-	-	-	-	
	최치원	8	494	1	-	3	-	
	한국영	38	3675	1	4	3	-	
	김지현	27	1597	10	1	3	-	
	발비아	6	414	2	1	1	-	
	서명원	4	122	-	-	1	-	
	정민우	-	-	-	-	-	-	
	정조국	31	1748	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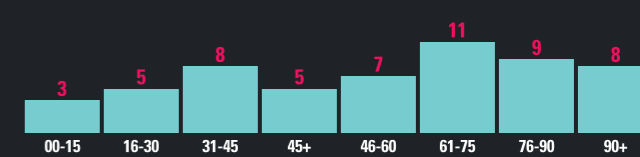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8%** 볼 점유율
- 104** 볼 점유횟수(총)
- 64** 상대진영 (61%)
- 41** 상대진영 1/4지점 (40%)
- 15** 박스 안 (14%)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572회
패스성공률	490(86%)
전진패스비율	81%
키패스성공률	58%
크로스성공률	29%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6%
3선 (리그 평균 44%)	49%
2선 (리그 평균 56%)	56%
1선 (리그 평균 65%)	64%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김지현	10	26	284
	조재완	8	19	173
	이영재	6	13	10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정승용	6	40
	이영재	5	27
	신광훈	4	56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한국영	2822	2608	92%
	신광훈	2156	1850	86%
	김오규	1774	1557	88%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김오규	285	61%	177
	한국영	201	56%	74
	발렌티노스	187	68%	121



TEAM PROFILES K LEAGUE 1

상주상무



정규리그 7위 | 38전 16승7무15패

감독 | 김태완

김태완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6	7	15
통산	37	30	62

SUMMARY '군 팀'이라는 경직된 이미지와 달리 전술적 유연성을 추구했다. 공격에서 미드필드를 거쳐 수비에 이르기까지 조화가 뛰어났다. 공간을 활용한 패스플레이가 돋보였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권태안	8	745	13	18	1	-
	윤보상	29	2704	37	83	1	-
	황병근	2	190	3	6	-	-
DF	고태원	3	241	-	-	-	-
	권완규	31	2362	1	-	7	1
	김경재	30	2732	-	-	5	-
	김대중	2	23	-	-	-	-
	김명빈	23	2115	1	1	4	1
	김진혁	9	801	1	-	1	-
	마상훈	15	733	-	-	1	-
	박대한	1	46	-	-	-	-
	배재우	4	340	-	1	-	-
	백동규	15	844	-	-	1	3
	안세희	3	238	-	-	1	-
	이민기	11	872	-	1	-	-
	이태희	27	2586	2	5	-	-
	장홍익	-	-	-	-	-	-
	차영환	1	94	-	-	-	-
MF	강상우	15	942	3	-	1	-
	김민우	20	1752	2	2	2	-
	김민혁	14	1049	1	1	2	-
	김선우	3	214	-	1	-	-
	류승우	12	790	1	1	-	-
	박제진	7	337	-	-	1	-
	배신영	3	62	-	1	-	-
	신창우	16	704	1	-	1	-
	안진범	18	1278	-	2	2	-
	윤빛가람	27	2539	8	4	3	-
	이규성	35	3265	-	3	3	-
	이상협	3	134	-	-	-	-
	이천동	4	368	-	-	1	-
	장은규	-	-	-	-	-	-
	조수철	1	59	-	-	-	-
FW	한석중	14	1107	-	-	1	-
	김건희	10	871	8	1	-	-
	김경중	13	741	2	-	2	-
	박용지	36	2632	12	3	2	-
	송수영	11	170	-	-	-	-
	송승민	2	120	-	-	-	-
	송시우	23	1441	3	4	1	-
	심동운	17	787	2	1	1	-
이호석	-	-	-	-	-	-	
진성욱	6	374	-	-	-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박용지	12	32	395
	김건희	8	16	142
	윤빛가람	8	31	13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이태희	5	31	
	윤빛가람	4	39	
	송시우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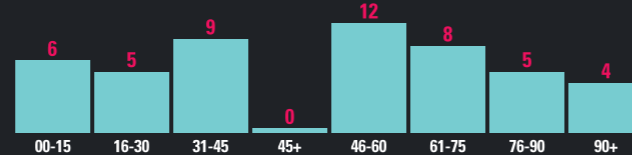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1%** 볼 점유율
- 104** 볼 점유횟수(총)
- 59** 상대진영 (57%)
- 39** 상대진영 1/4지점 (37%)
- 14** 박스 안 (13%)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69회
패스성공률	391(83%)
전진패스성공률	77%
키패스성공률	53%
크로스성공률	24%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4%
3선 (리그 평균 44%)	44%
2선 (리그 평균 56%)	54%
1선 (리그 평균 65%)	68%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이규성	2116	1861	88%
	윤빛가람	1738	1459	84%
	권완규	1509	1295	86%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권완규	274	67%	195
	김경재	260	59%	272
	김명빈	189	62%	143



TEAM PROFILES K LEAGUE 1

수원삼성



정규리그 8위 | 38전 12승12무14패

감독 | 이임생

이임생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2	12	14
통산	12	12	14

SUMMARY 조나탄(2017)과 데안(2018)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타카트가 사실상 팀의 동력이었다. 20골을 기록한 타카트는 팀 득점의 43%를 책임졌다. 후반 30분 이후 실점(2실)이 많아 순위 싸움에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다솔	7	683	17	29	-	-
	노동건	29	2794	26	86	3	-
	박지민	1	94	4	4	-	-
	양형모	1	96	2	1	-	-
	안영호	1	96	2	1	-	-
DF	고영석	19	1716	-	-	2	-
	구대영	18	1465	2	1	4	-
	구자룡	30	2853	1	-	5	-
	김강준	-	-	-	-	-	-
	김민호	1	25	-	-	-	-
	김태환	3	287	-	-	1	-
	민상기	20	1745	-	-	3	1
	박대원	4	173	-	-	-	-
	박준형	2	112	-	-	1	-
	박형진	23	1838	-	-	2	-
	양상민	21	1699	-	-	-	-
	윤서호	-	-	-	-	-	-
	조성진	10	679	-	-	1	-
	홍철	30	2791	1	4	3	-
	MF	고승범	1	655	-	-	2
김민우		6	530	1	-	-	-
김종우		21	1374	-	1	3	-
사리치		12	1051	1	7	3	-
송진규		7	306	-	-	-	-
신상휘		1	48	-	-	-	-
신세계		23	2024	1	2	5	-
염기훈		26	1898	6	3	1	-
안토니스		11	752	-	3	1	-
이상민		1	54	-	-	2	-
FW	바그닝요	19	999	1	1	1	-
	박장혁	2	91	-	-	-	-
	데안	21	1255	3	1	2	-
	오현규	11	365	-	-	2	-
	유주안	8	412	-	1	-	-
	임상협	2	149	-	-	1	-
	전세진	20	1127	-	2	3	-
	주현호	-	-	-	-	-	-
	타카트	33	2641	20	1	2	-
	한석희	11	334	4	-	1	-
한의권	29	1885	3	1	3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타카트	20	52	519
	염기훈	6	21	339
	한석희	4	8	6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사리치	7	17	
	홍철	4	37	
	염기훈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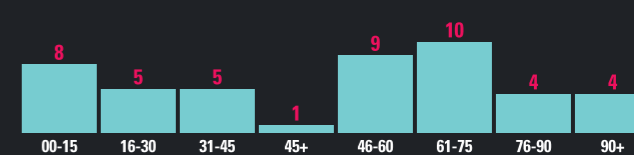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1%** 볼 점유율
- 107** 볼 점유횟수(총)
- 65** 상대진영 (61%)
- 40** 상대진영 1/4지점 (38%)
- 14** 박스 안 (13%)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71회
패스성공률	390(83%)
전진패스성공률	78%
키패스성공률	55%
크로스성공률	26%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4%
3선 (리그 평균 44%)	49%
2선 (리그 평균 56%)	56%
1선 (리그 평균 65%)	65%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홍철	1887	1527	81%
	최성근	1336	1233	92%
	염기훈	1159	940	81%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구자룡	221	62%	160
	양상민	172	60%	151
	민상기	172	84%	131



정규리그 9위 | 38전 12승9무17패

감독 | 남기일

남기일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2	9	17
통산	80	66	85

SUMMARY '효율 축구의 승리'. 다득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K리그에서 리그 최소 득점(30골)의 성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스트라이커 부재라는 치명적 결함에도 수비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승점을 관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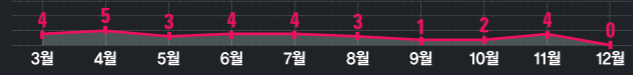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근배	2	192	4	3	-	-
	김동준	28	2566	27	90	1	1
	문광석	-	-	-	-	-	-
	전종혁	10	885	9	26	-	-
DF	문지환	21	1820	-	-	5	-
	박원재	11	745	1	-	-	-
	안영규	29	2352	-	1	-	-
	연제운	38	3640	-	-	-	-
	이건	-	-	-	-	-	-
	이태희	9	860	-	-	1	-
	이창용	-	-	-	-	-	-
	임승겸	17	1256	2	-	6	-
	임채민	25	2196	2	-	6	-
	최준기	1	83	-	-	-	-
	MF	김기열	3	195	-	-	1
김동현		7	470	-	-	1	-
김민혁		8	713	2	2	2	-
김정현		18	1249	1	1	3	-
문상윤		14	767	1	-	-	-
박태준		9	674	-	-	2	-
서보민		32	2664	4	4	1	-
에델		21	1629	5	1	1	-
조성준		14	1060	1	1	2	-
주현우		30	2550	1	4	-	-
최병찬		24	1383	1	2	5	-
FW	최오백	14	802	-	-	1	-
	공민현	33	2222	2	2	6	-
	김소용	5	271	-	1	-	-
	김연왕	1	9	-	-	-	-
	김현성	23	1531	3	1	2	-
	마티아스	21	1055	2	-	1	-
	박관우	8	334	-	-	1	-
	이은범	7	444	-	-	5	-
	이재원	16	1061	2	-	5	-
	이현일	7	349	-	-	3	-
	전성수	-	-	-	-	-	-
전현근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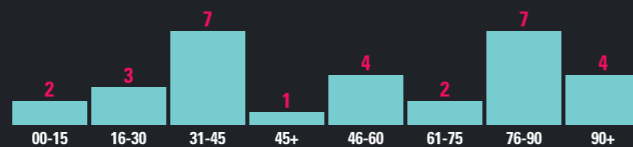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48%** 볼 점유율
- 102** 볼 점유횟수(총)
- 60** 상대진영 (59%)
- 39** 상대진영 1/4지점 (38%)
- 13** 박스 안 (13%)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23회
패스성공률	347(82%)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3%
3선 (리그 평균 44%)	43%
2선 (리그 평균 56%)	56%
1선 (리그 평균 65%)	64%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에델	5	24	294
	서보민	4	17	97
	김현성	3	11	41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서보민	4	27
	주현우	4	29
	공민현	2	31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연제운	1921	1704	89%
	안영규	1256	1059	84%
	이창용	1145	1017	89%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연제운	253	70%	205
	안영규	195	60%	155
	임채민	172	66%	135



정규리그 10위 | 38전 7승13무18패

감독 | 안데르센, 임중용(대행), 유상철

유상철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6	10	11
통산	25	31	50

SUMMARY '진리DNA'는 2019년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승점 34점 중 15점을 9월과 11월 사이에 챙겼다. 무고사가 절대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득점뿐 아니라 슈팅, 키패스, 득점 상황에서 움직임 등 공격 전반에서 팀내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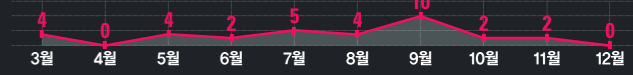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동현	-	-	-	-	-	-
	이태희	12	1123	14	45	1	-
	정산	27	2524	40	93	2	-
	이재성	20	1913	1	-	4	-
DF	곽해성	14	1268	-	4	-	-
	김대경	1	84	-	-	-	-
	김동민	23	206	-	-	7	-
	김정호	25	2208	1	-	2	-
	김진야	32	2594	-	1	1	-
	김재운	1	14	-	-	-	-
	김태호	-	-	-	-	-	-
	부노자	15	1305	-	-	1	1
	여상해	12	1155	-	1	1	-
	이재성	20	1913	1	-	4	-
	정동윤	22	1751	-	2	5	-
주종대	2	1485	1	2	1	-	
MF	김강국	3	282	-	-	-	-
	김근환	1	16	-	-	-	-
	김도혁	11	664	-	1	1	-
	마하지	13	1106	1	-	4	-
	명준재	16	964	2	1	6	-
	문창진	20	875	2	1	-	-
	박세직	15	1116	-	-	-	-
	서재민	2	78	-	-	-	-
	양준아	12	909	-	-	-	-
	이우혁	8	590	2	-	1	-
	이정빈	8	368	-	-	1	-
이재호	3	231	1	-	1	-	
이지훈	7	161	-	-	1	-	
임은수	13	1247	-	-	3	-	
장윤호	14	1147	-	-	4	-	
정훈성	16	1038	1	-	1	-	
지연학	20	1485	1	2	1	-	
최병경	11	548	-	-	1	-	
하미드	11	795	1	2	1	-	
FW	김승용	2	33	-	-	-	-
	김호남	18	1467	4	-	1	-
	김보섭	13	771	-	-	-	-
	남준재	13	728	1	-	3	-
	무고사	32	2814	14	4	2	-
	공무영	8	392	-	-	1	-
	케히데	14	627	1	-	1	-
허용준	10	67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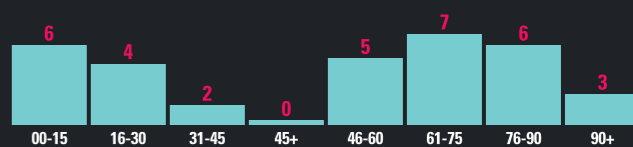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47%** 볼 점유율
- 104** 볼 점유횟수(총)
- 57** 상대진영 (55%)
- 37** 상대진영 1/4지점 (35%)
- 12** 박스 안 (12%)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24회
패스성공률	339(80%)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4%
3선 (리그 평균 44%)	44%
2선 (리그 평균 56%)	56%
1선 (리그 평균 65%)	63%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무고사	14	51	368
	김호남	4	6	91
	명준재	2	12	11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무고사	4	57
	곽해성	4	5
	지연학	2	21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김정호	1116	954	85%
	정동윤	1102	917	83%
	김진야	1033	832	81%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김정호	207	68%	128
	이재성	175	60%	167
	부노자	147	64%	110



TEAM PROFILES K LEAGUE 1

경남FC



정규리그 11위 | 38전 6승15무17패
감독 | 김종부
김종부 감독 전적(2019 승강PO 기록 제외)

	승	무	패
2019	6	15	17
통산	66	39	47

SUMMARY AFC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를 모두 소화하느라 부담이 컸다. 백백한 일정에 주전들의 줄바꿈이 잦았고, 후반기에 집중력과 결속력 모두 떨어졌다. 승점 관리에 실패하면서 11위로 마무리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강신우	-	-	-	-	-	-	
	박태홍	1	11	-	-	1	-	
	손정현	13	1256	26	43	1	-	
	이범수	25	2412	35	77	2	-	
DF	곽태휘	16	1231	-	-	-	-	
	김현중	-	-	-	-	-	-	
	박광일	8	509	-	1	-	-	
	배승진	7	549	-	1	1	-	
	송주훈	9	717	-	-	1	-	
	여성해	11	953	-	-	2	-	
	우주성	26	2284	1	1	1	-	
	이재명	8	689	-	-	-	-	
	최재수	15	1024	1	1	3	-	
	MF	고경민	22	1395	-	4	4	-
		김종필	23	1928	2	-	3	1
		김준범	28	2316	1	3	1	-
		머치	8	435	1	-	2	1
		안성남	19	1610	-	-	1	-
		오스만	7	521	1	-	1	-
이광진		25	2412	-	-	2	-	
이영재		11	789	2	1	1	-	
조재철		18	1485	1	1	2	-	
하성민		21	1397	-	-	4	-	
FW	김승준	29	2232	6	4	3	-	
	김종진	7	351	1	-	-	-	
	김효기	29	2057	4	3	2	-	
	네게바	11	860	-	-	1	-	
	도동현	3	142	-	-	1	-	
	룩	22	1574	3	3	-	-	
	박기동	7	202	1	-	-	-	
	배기종	31	1284	5	1	-	-	
	이광선	29	2567	-	-	8	-	
	이승엽	1	63	-	-	-	-	
제리치	17	1495	9	1	2	-		
쿠니모토	26	2101	2	2	2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제리치	9	22	266
	김승준	6	19	208
	배기종	5	13	17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김승준	4	25	
	고경민	4	28	
	김효기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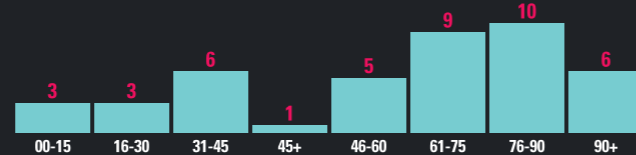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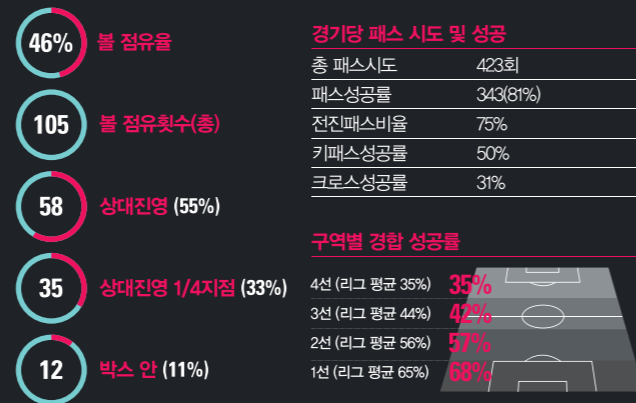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쿠니모토	1268	955	75%
	김준범	1103	979	89%
	우주성	1053	827	79%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이광선	179	78%	164
	우주성	173	62%	163
	이광진	149	61%	126



TEAM PROFILES K LEAGUE 1

제주유나이티드



정규리그 12위 | 38전 5승12무21패
감독 | 조성환, 최윤겸
최윤겸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5	8	16
통산	131	134	127

SUMMARY 지난 시즌에 비해 득점 기록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실점 기록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집중력 문제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반 막판 15분(18실), 후반 막판 15분(18실) 실점이 많았다. 강등을 피하지 못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한근	-	-	-	-	-	-	
	오승훈	11	1056	21	35	-	-	
	이창근	23	2199	45	77	-	-	
	황성민	4	385	6	12	-	-	
	DF	강윤성	23	1689	-	1	3	-
		권한진	8	586	1	-	1	-
		김대호	1	95	-	-	1	-
		김동우	26	2385	-	-	2	-
		김승우	8	566	-	-	1	-
		김원일	9	665	1	-	1	-
김지운		6	543	-	-	5	-	
박진포		22	1959	-	2	5	-	
백동규		8	740	-	-	3	-	
알렉스		23	1806	-	-	3	-	
이규혁		-	-	-	-	-	-	
정우재		11	950	-	-	1	-	
조용형		5	479	-	1	3	-	
최규백		8	630	-	-	1	-	
MF		권순형	27	1996	1	-	1	-
	김성주	19	1206	-	1	1	-	
	아길라르	26	1679	4	5	1	-	
	안현범	13	1137	4	-	1	-	
	윤빛가람	9	822	1	1	-	-	
	이근호	13	673	1	1	1	-	
	이동수	14	761	-	-	-	-	
	이동희	10	730	-	-	2	1	
	이창민	32	2839	5	1	2	1	
	최현태	5	337	-	-	1	-	
FW	김현	2	30	-	-	1	-	
	김호남	17	1376	-	1	3	-	
	남준재	14	909	3	1	2	-	
	마그노	36	2435	8	2	5	-	
	서진수	11	660	-	4	-	-	
	오사구오나	11	596	1	-	3	-	
	윤일록	34	3024	11	3	3	-	
	이근호	13	673	1	1	1	-	
	이동률	5	65	-	-	-	-	
	이은범	7	418	-	1	1	-	
임상협	4	239	-	-	-	-		
임찬울	11	452	-	1	1	-		
찌이구	15	883	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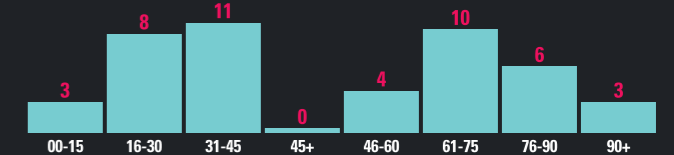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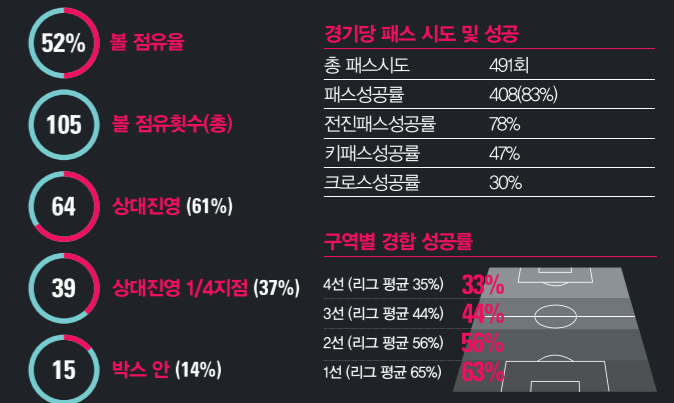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윤일록	11	47	393
	마그노	8	21	370
	이창민	5	34	161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아길라르	5	63	
	서진수	4	47	
	윤일록	3	47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이창민	1859	1558	84%
	김동우	1320	1102	83%
	권순형	1319	1163	88%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김동우	206	65%	176
	알렉스	202	67%	143
	박진포	111	72%	94



정규리그 우승 | 36전 21승10무5패
감독 | 박진섭
박진섭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1	15	11
통산	32	25	16

SUMMARY 시즌 내내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다. 무패행진이 19라운드까지 이어졌다. 안양전 대패 이후 위기를 맞는 듯했으나 뒷심을 발휘했다. 수비 조직력과 펠리페의 결정력, 박진섭 감독의 지도력이 3박자를 이뤘다. 3년 만의 승격이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태곤	-	-	-	-	-	-	
	윤평국	26	2469	24	67	-	-	
	이진형	9	780	4	27	-	-	
	최봉진	2	192	3	3	1	-	
DF	김영빈	3	213	-	-	-	-	
	김지환	12	959	1	-	-	-	
	김태윤	2	189	-	-	-	-	
	박선주	14	1291	-	1	2	-	
	아솔마토프	26	2452	1	1	7	-	
	이시영	13	1233	-	3	2	-	
	이요름	30	2653	5	3	3	-	
	이한도	26	2360	1	-	4	1	
	임진우	-	-	-	-	-	-	
	정준연	10	896	-	-	3	-	
	홍준호	16	956	-	-	3	-	
	MF	김준형	16	709	-	-	1	-
		박정수	27	2256	1	-	4	-
		손민우	1	72	-	-	-	-
		이요름	29	2247	3	3	2	-
	여름	23	1749	1	1	7	-	
윌리안	25	1866	8	2	6	-		
임민혁	18	1063	2	-	2	-		
정현우	2	47	-	-	-	-		
최준혁	31	2647	-	1	6	-		
김치요	8	514	2	-	-	-		
FW	김정환	19	1193	4	1	2	-	
	김주공	17	1114	3	2	1	-	
	두현석	24	1136	3	4	-	-	
	엄원상	16	765	2	-	-	-	
	이희균	16	1035	-	2	4	-	
	정용총	3	101	1	-	-	-	
	조주영	10	251	1	-	-	-	
	최후주	3	47	-	-	-	-	
펠리페	27	2415	19	3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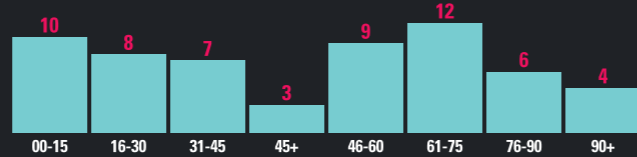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0% 볼 점유율
- 110 볼 점유횟수(총)
- 65 상대진영 (60%)
- 41 상대진영 1/4지점 (38%)
- 16 박스 안 (14%)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399회
패스성공률 312(78%)
전진패스비율 74%
키패스성공률 61%
크로스성공률 29%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5%
3선 (리그 평균 44%) 44%
2선 (리그 평균 56%) 56%
1선 (리그 평균 65%) 65%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펠리페	19	38	776
	윌리안	8	24	309
	이요름	5	14	9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두현석	4	17
	펠리페	3	45
	이요름	3	18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이요름	1352	1002	74%
	최준혁	1073	823	77%
	아솔마토프	1015	856	84%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최준혁	229	64%	232
	아솔마토프	227	69%	184
	이한도	169	72%	163



정규리그 2위 | 36전 18승13무5패
감독 | 조덕제
조덕제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20	14	5
통산	83	64	71

SUMMARY 1위 후보로 꼽혔으나 광주에 밀려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쳤다. 공격은 리그 최고였으나 수비 지표가 그에 밀린 탓이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 총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1부 리그 복귀를 확정 지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구상민	2	192	5	1	-	-
	김정호	2	193	5	4	1	-
	김형근	16	1541	21	44	1	-
	최필수	17	1636	16	48	1	-
	이동준	6	550	-	-	1	-
DF	권진영	3	88	-	-	-	-
	김명준	32	3022	2	1	9	-
	김문환	27	2369	-	2	7	-
	김치우	23	2050	-	4	5	-
	노형석	1	96	-	-	1	-
	박경민	4	305	-	-	-	-
	박준강	14	1052	-	2	3	-
	박호영	7	207	-	-	1	-
	수신아르	29	2729	-	-	10	1
	유수철	1	87	-	-	1	-
	이상준	4	383	1	1	-	-
	이종민	4	181	-	-	-	-
	정호정	7	468	-	-	1	-
	차영환	2	99	-	-	-	-
	황준호	15	820	-	-	2	-
	MF	권혁규	2	101	-	-	1
김진규		32	2208	4	3	1	-
박종우		33	3062	2	7	6	1
서용덕		9	468	-	1	-	-
FW	이후권	5	220	-	-	2	-
	한상운	5	313	-	-	-	-
	호물로	32	2985	14	2	3	-
	관용현	30	1556	2	4	1	-
	노보트니	27	1583	12	1	5	-
	디에고	21	962	6	1	2	-
	이동준	37	3181	13	7	1	-
	이정협	31	2244	13	4	6	-
	정성민	1	13	-	-	-	-
	최승인	3	129	-	-	-	-
한지호	32	1939	4	3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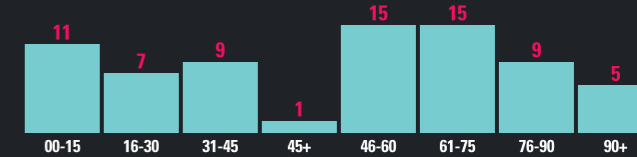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4% 볼 점유율
- 110 볼 점유횟수(총)
- 67 상대진영 (61%)
- 44 상대진영 1/4지점 (40%)
- 18 박스 안 (16%)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67회
패스성공률 384(82%)
전진패스비율 76%
키패스성공률 55%
크로스성공률 24%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2%
3선 (리그 평균 44%) 45%
2선 (리그 평균 56%) 55%
1선 (리그 평균 65%) 67%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호물로	14	46	196
	이정협	13	30	336
	이동준	13	34	476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박종우	7	39
	이동준	7	76
	관용현	4	49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박종우	1884	1552	82%
	호물로	1772	1322	77%
	수신아르	1495	1262	84%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김명준	252	65.2%	217
	수신아르	248	51%	199
	박종우	214	57%	231



정규리그 3위 | 36전 15승10무11패

감독 | 김형열

김형열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5	10	11
통산	15	10	11

SUMMARY 부산 상대 개막전 4-1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일부 핵심 선수를 이 떠났지만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스리톱을 중심으로 이변을 작성했다. 7월 이후에는 3위를 굳혔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태훈	-	-	-	-	-	-	
	양동원	32	3088	41	98	1	-	
	정민기	3	292	4	8	1	-	
	최필수	2	289	7	4	-	-	
DF	김상원	10	2978	6	8	8	-	
	김형진	31	2796	-	-	5	-	
	류언재	23	1963	-	1	3	-	
	안성빈	13	772	-	1	2	-	
	유연승	8	276	-	-	-	-	
	유종현	28	2024	-	1	9	-	
	이상용	12	969	-	-	4	-	
	이선결	11	536	1	1	2	-	
	채광훈	28	2547	2	3	3	-	
	최우재	2	141	-	-	-	-	
	최호정	35	3280	-	1	4	2	
	MF	구본상	35	2482	1	1	10	-
		맹성웅	26	1450	-	-	3	-
		알렉스	33	2950	13	5	2	-
은성수		3	131	-	-	-	-	
이정빈		22	1752	4	2	2	-	
주현재		9	505	-	-	-	-	
최승호		-	-	-	-	-	-	
최재훈		17	731	-	1	-	-	
FW		김덕중	-	-	-	-	-	-
		김신철	3	42	-	-	1	-
	김원민	27	936	3	-	3	-	
	모재현	12	702	3	1	1	-	
	미콜라	11	666	3	-	1	-	
	조규성	33	2902	14	4	3	1	
팔라시오스	34	2992	11	6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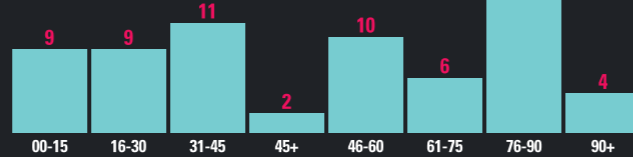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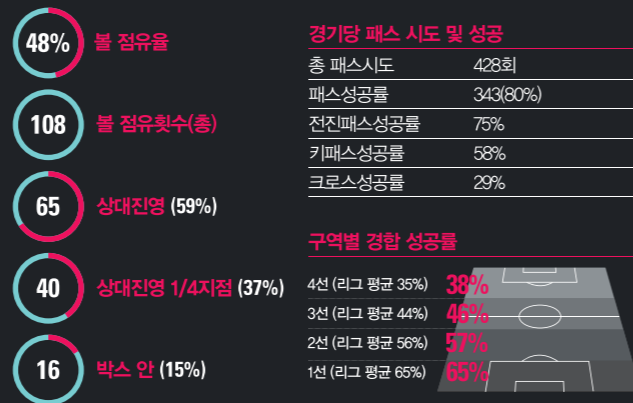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조규성	14	38	704
	알렉스	13	37	362
	팔라시오스	11	58	58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김상원	8	41	
	팔라시오스	6	76	
	조규성	4	30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김상원	1668	1359	82%
	최호정	1458	1282	88%
	구본상	1259	1068	85%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최호정	238	62%	192
	김형진	230	67%	178
	유종현	176	73%	174



정규리그 4위 | 36전 14승9무13패

감독 | 송선호

송선호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4	9	13
통산	60	34	46

SUMMARY 4월부터 8월까지 단 4승 수확에 그치며 지지부진한 출발을 했다. 김륜도, 말론, 닐손주니어로 대표되는 공격진은 제 몫을 해줬지만 많은 실점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시즌 막판 극적인 5연승을 달리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영창	2	189	3	7	-	-	
	이주현	-	-	-	-	-	-	
	최철원	35	3376	49	06	1	-	
	김한솔	-	-	-	-	-	-	
DF	국태정	17	1528	1	3	2	1	
	권승리	1	13	-	-	-	-	
	김재우	25	2061	1	3	2	-	
	김한빈	12	969	1	1	1	-	
	박건	26	2368	1	1	3	-	
	박요한	9	576	1	-	1	-	
	윤지혁	1	3	-	-	-	-	
	이민규	16	1465	-	-	-	-	
	임동혁	32	3001	3	1	1	-	
	MF	김영남	6	421	-	-	-	-
		김지호	3	205	-	-	-	-
		닐손주니어	37	3510	10	-	3	-
		문기한	21	1382	1	4	4	-
		송홍민	20	1328	2	-	2	-
안태현		36	3257	4	2	3	-	
이시현		11	404	-	-	-	-	
이정찬		9	441	-	-	-	-	
장백규		3	178	-	1	1	-	
장현수		25	1273	1	-	2	-	
FW	조범석	13	1226	-	-	1	-	
	조수철	7	624	2	-	3	-	
	김륜도	35	2560	6	5	3	-	
	김찬희	12	368	1	-	-	-	
	마리냥	9	468	-	1	-	-	
	이광재	7	337	-	-	2	-	
정택훈	12	400	1	-	1	-		
조건규	5	188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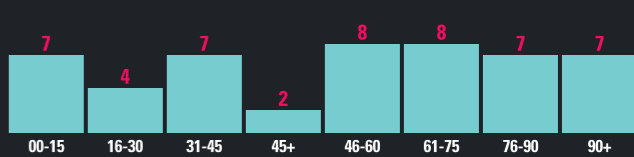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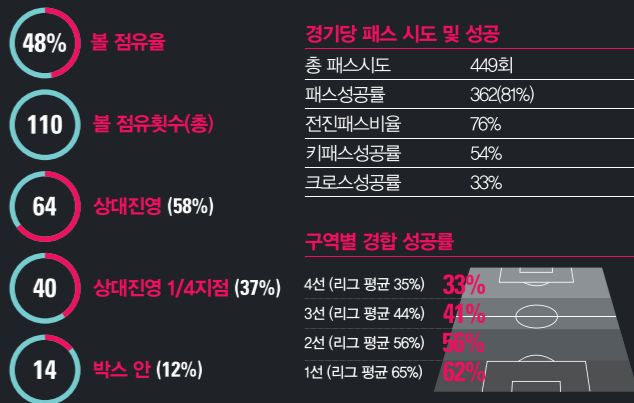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말론	10	47	506
	닐손주니어	10	23	117
	김륜도	6	19	46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김륜도	5	30	
	문기한	4	28	
	김한솔	4	29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닐손주니어	1677	1411	84%
	안태현	1461	1149	79%
	김한솔	1414	1110	79%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닐손주니어	369	71%	330
	임동혁	271	69%	246
	박건	168	62%	133



TEAM PROFILES K LEAGUE 2

안산그리너스



정규리그 5위 | 36전 14승8무14패

감독 | 임완섭

임완섭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4	8	14
통산	15	10	17

SUMMARY 지난 시즌을 9위로 마쳤던 안산이 분전했다. 수비가 한뼘 거들었다. 안산은 광주에 이어 최소 실점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완전한 반전을 노리기에는 뒷심이 약했다. 시즌 막판 4위를 내주며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쳤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희성	18	1734	25	50	-	-	
	하준호	-	-	-	-	-	-	
	황인재	18	1741	17	39	-	-	
DF	김민성	-	-	-	-	-	-	
	김진래	19	1506	-	-	5	-	
	김연수	32	3085	1	1	4	-	
	박준희	32	2746	1	3	2	-	
	윤선호	1	96	-	-	-	-	
	이인재	36	3475	2	-	2	-	
	이준희	11	1005	-	1	4	-	
	장준수	-	-	-	-	-	-	
	최명희	30	2400	-	1	2	-	
	최성민	15	1396	-	-	5	-	
	황태현	18	1558	-	3	1	-	
	MF	김대열	15	996	1	-	3	1
		김종석	1	20	-	-	-	-
김진욱		10	504	1	1	-	-	
곽성욱		22	1222	1	1	-	-	
마사		24	1372	9	1	1	-	
박진섭		36	3224	5	1	3	-	
유지민		4	140	-	-	-	-	
유청인		-	-	-	-	-	-	
이민규		-	-	-	-	-	-	
장혁진		34	3149	5	9	6	-	
FW	펠리베	5	223	-	-	-	-	
	방찬준	22	619	4	2	1	-	
	빈치썬코	28	2482	9	3	11	2	
	심재민	2	65	-	-	-	-	
	이정훈	22	1337	2	-	2	-	
	진창수	8	307	1	-	1	-	
	최호주	13	574	1	1	-	-	
	파우벨	20	1150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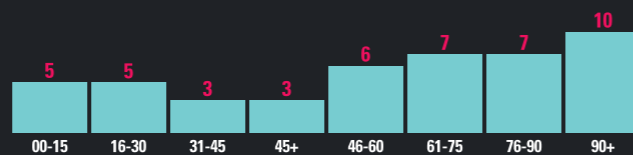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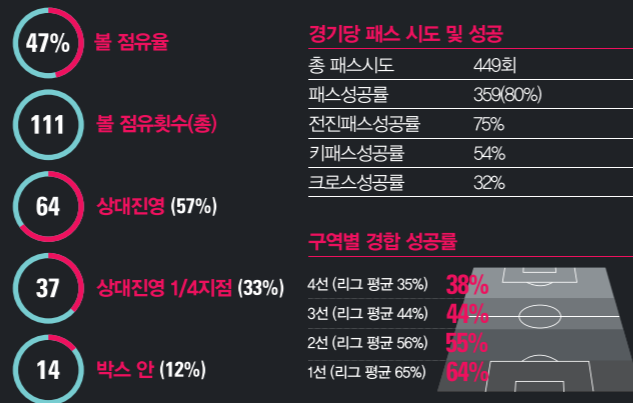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마사	9	26	198
	빈치썬코	9	48	681
	장혁진	5	22	42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장혁진	9	86
	황태현	3	17
	빈치썬코	3	46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장혁진	1777	1365	77%
	박진섭	1639	1366	83%
	이인재	1594	1386	87%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김연수	333	78%	223
	이인재	294	64%	226
	박진섭	214	66%	239



TEAM PROFILES K LEAGUE 2

전남드래곤즈



정규리그 6위 | 36전 13승9무14패

감독 | 파비아노, 전경준(대행)

전경준 (대행)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7	5	3
통산	7	5	3

SUMMARY 사상 최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며 노렸던 승격이 무산됐다. 슈팅이 골대 안쪽으로 이어진 비율이 31%에 그쳤다. 리그 최하위 기록이다. 공격적인 볼 점유율도 리그 9위를 기록했다. 적극성이 아쉬운 전담이었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대한	-	-	-	-	-	-
	박준혁	31	2993	38	74	3	-
	이호승	5	481	9	8	-	-
DF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기슬현	19	1379	-	1	4	-
	곽광선	27	2445	-	-	2	-
	김민준	15	969	-	-	3	-
	김민혁	5	161	-	-	2	-
	김주원	12	1153	-	-	3	-
	김진성	3	95	-	-	2	-
	신진하	2	104	-	-	-	-
	신찬우	-	-	-	-	-	-
	안병건(1)	3	286	-	-	3	-
	안셀	15	1189	-	-	1	1
	이슬찬	20	1851	-	1	3	-
	이유현	22	1686	1	1	6	-
	이지남	16	1357	1	-	1	-
	최재현	19	1278	3	-	2	-
	최준기	4	371	-	-	-	-
	MF	최효진	28	2632	1	3	2
김건용		33	3185	3	1	4	-
김선우		-	-	-	-	-	-
김영욱		28	2201	6	3	7	-
유고비치		7	464	-	-	3	-
윤용호		5	187	1	-	1	-
이후권		10	741	-	-	1	-
정재희		29	2403	5	10	2	-
한승욱		8	310	1	-	1	-
한찬희		30	2525	3	2	10	-
FW	김경민	26	1131	2	1	1	-
	마세도	2	111	-	-	1	-
	바이오	16	1326	10	-	7	-
	브루노 누네스	25	1811	6	3	4	-
	정희웅	13	795	-	1	2	-
	조윤형	7	245	-	-	1	-
	최효진	6	479	-	-	2	-
	추정호	10	386	-	1	-	-
	한창우	3	64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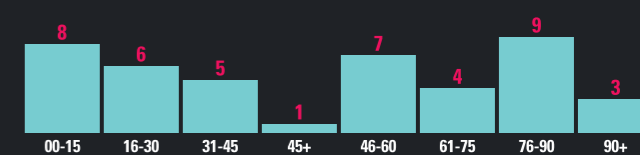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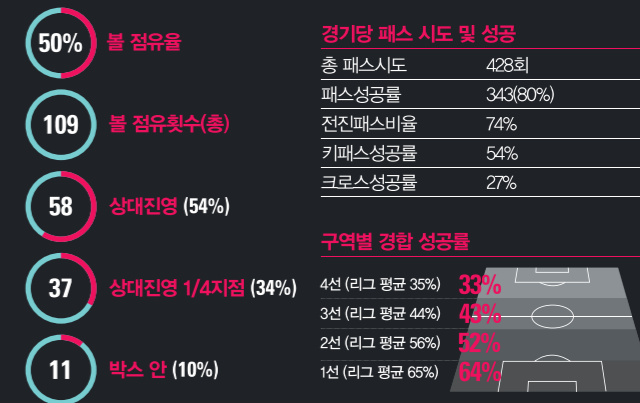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바이오	10	22	356
	브루노루네스	6	20	392
	김영욱	6	12	15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정재희	10	47
	브루노루네스	3	18
	김영욱	3	23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한찬희	1326	1049	79%
	최효진	1287	1018	79%
	곽광선	1162	996	86%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곽광선	193	70%	177
	최효진	190	65%	164
	이지남	143	56.8%	109



TEAM PROFILES K LEAGUE 2

아산무궁화



정규리그 7위 | 36전 12승8무16패

감독 | 박동혁

박동혁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2	8	16
통산	33	17	22

SUMMARY 디펜딩 챔피언이 흔들렸다. 패스 시도 1위, 공격형 패스 1위를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득점이 부족했다. 득점 리그 11위이다. 복무 기간을 마치고 떠난 선수들 공백도 컸다. 전복으로 복귀한 고무열이 최다 득점자라는 것이 그 방증이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영익	-	-	-	-	-	-
	양형모	7	670	15	18	-	-
	이기현	11	1056	21	37	-	-
	제중현	3	282	5	6	-	-
	최봉진	15	1458	15	41	2	-
DF	김기영	3	250	-	-	1	-
	김동진	20	1702	-	-	3	-
	김주원	10	855	-	-	1	1
	김지운	11	645	-	-	1	-
	민준영	8	710	1	-	2	-
	박성우	8	476	-	1	1	-
	박재우	8	592	-	-	-	-
	이한샘	14	1306	1	-	4	-
	장순혁	28	2464	-	-	3	-
	전효석	15	1145	-	-	-	-
	정다환	9	859	-	-	3	-
	정성현	-	-	-	-	-	-
	정원영	8	604	-	-	-	-
MF	김경우	4	72	-	-	1	-
	김도혁	21	1977	-	1	1	-
	김민석	16	723	1	-	2	-
	김신민	4	268	-	-	-	-
	박세직	16	1434	1	-	-	-
	송환영	7	410	1	-	-	-
	안현범	13	1156	-	2	1	-
	양태일	15	1207	3	-	2	-
	이명주	19	1604	2	1	5	-
	임창균	12	594	-	-	-	-
	조범석	20	1631	-	-	-	-
	주세종	21	1894	2	5	3	1
	주원성	1	62	-	-	-	-
	최요셉	8	251	1	1	-	-
FW	김도엽	13	803	-	1	1	-
	김레오	22	1009	2	-	2	-
	김민우	7	346	-	-	-	-
	고무열	22	2077	12	3	3	-
	남희철	13	307	1	-	4	-
	박민서	23	1620	5	3	-	-
	오세훈	30	2489	7	3	1	-
	이재건	16	901	-	2	2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고무열	12	33	292
	오세훈	7	29	732
	박민서	5	23	281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주세종	5	30	
	고무열	3	32	
	박민서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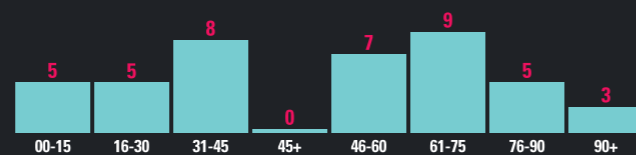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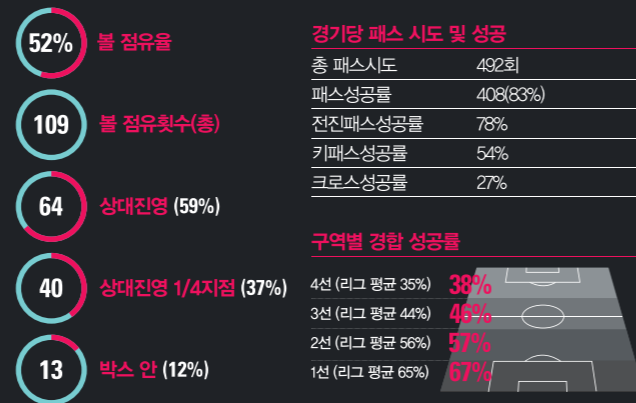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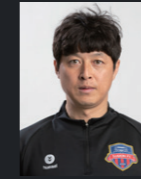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주세종	1726	1477	86%
	김도혁	1395	1168	84%
	김동진	1087	1168	86%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장순혁	210	54%	151
	김도혁	128	65%	117
	김동진	111	55%	96



TEAM PROFILES K LEAGUE 2

수원FC



정규리그 8위 | 36전 11승10무15패

감독 | 김대의, 이관우(대행)

이관우 (대행)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1	-	1
통산	1	-	1

SUMMARY 치숨이 공격포인트 19개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팀 슈팅이 리그 평균보다 부정확했다. 유효 슈팅 비율이 하위권(8위)이다. 세트피스 수비도 허점을 드러냈다. 5월에 챙긴 4승은 결국 허망고문으로 끝났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형순	28	2695	41	82	-	-
	임지훈	-	-	-	-	-	-
	전수현	8	767	14	24	-	-
	최문수	-	-	-	-	-	-
DF	김대호	2	128	-	-	1	-
	김영찬	20	1755	-	1	7	-
	김주엽	8	456	-	-	1	-
	박요한	23	2161	-	1	3	-
	우찬양	7	674	-	-	-	-
	윤준성	21	1724	-	-	6	-
	이용	7	255	1	-	1	-
	이학민	22	1928	-	2	6	-
	이한샘	7	627	-	-	1	-
	장준영	25	2123	3	3	5	-
	조상범	-	-	-	-	-	-
	조유민	31	2926	2	-	7	-
	채신일	5	346	-	-	-	-
MF	김종국	12	918	-	-	-	-
	김정현	1	21	-	-	-	-
	백성동	35	3309	7	7	3	-
	벨라스케즈	8	489	-	-	-	-
	안은산	4	234	-	-	-	-
	우예찬	2	137	-	-	-	-
	이승현	3	152	-	-	-	-
	이종원	10	709	-	-	1	-
	임창균	11	645	1	2	2	-
	장성재	31	2583	1	-	2	-
	조블른	8	390	-	2	2	-
	황병권	21	929	1	-	2	-
FW	강민재	2	94	-	-	-	-
	김동찬	9	332	-	-	1	-
	김병오	25	1635	2	2	3	-
	김지민	12	458	1	-	3	-
	모재현	1	63	-	-	-	-
	송수영	4	125	-	-	-	-
	아니에르	21	1277	4	4	3	-
	안병준	17	1489	8	-	3	-
	염승민	1	5	-	-	-	-
	이재안	14	680	-	2	-	-
	치숨	33	2707	18	1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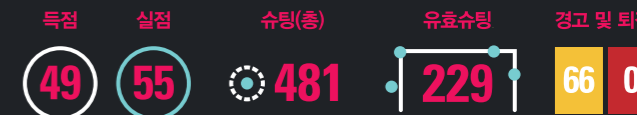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치숨	18	57	390
	안병준	8	26	333
	백성동	7	29	191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백성동	7	72	
	아니에르	4	20	
	장준영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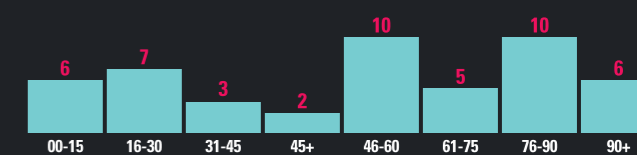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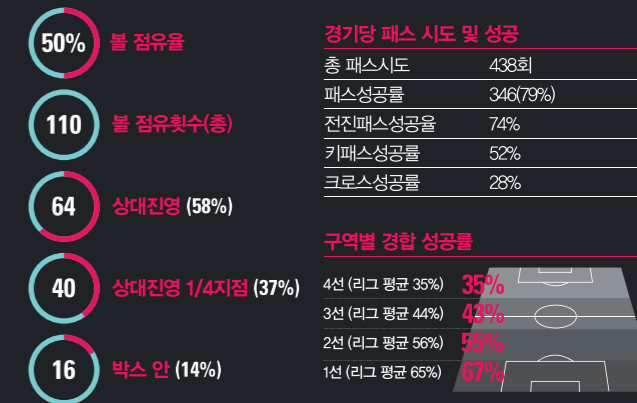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백성동	1563	1253	80%
	조유민	1480	1152	78%
	장성재	1395	1156	83%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조유민	320	69%	261
	김영찬	174	72%	137
	장준영	169	70%	163



TEAM PROFILES K LEAGUE 2

대전시티즌



정규리그 9위 | 36전 8승11무17패
감독 | 고종수, 박철(대행), 이흥실
이흥실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5	7	7
통산	57	42	44

SUMMARY 지난 시즌 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했던 대전이 9위까지 미끄러졌다. 리더십이 흔들렸고 동시에 득점 가뭄에 시달렸다. 실점은 공동 6위권이었던나 득점이 경기당 0.86골로 독보적 1위였다. 논리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진영	7	676	13	9	-	-	
	문용휘	-	-	-	-	-	-	
	박주원	29	2779	34	100	-	-	
DF	권영호	-	-	-	-	-	-	
	김지훈	1	83	-	-	-	-	
	김태현	11	970	-	-	3	-	
	박민규	15	1440	-	-	3	-	
	윤경보	15	1248	-	-	2	-	
	윤신영	22	1868	-	-	3	-	
	이민규	12	1066	-	-	1	-	
	이정문	23	1440	1	-	4	-	
	이지술	23	2105	1	-	6	1	
	전상훈	1	95	-	-	1	-	
	조귀범	2	123	-	-	1	-	
	황도연	5	415	-	-	-	-	
	황재훈	29	2586	-	1	2	-	
	MF	가도예프	8	332	-	1	-	-
		김민성	3	228	-	-	-	-
		김예성	10	629	-	-	1	-
		박수일	32	2386	1	3	1	-
		박주정(1)	26	1660	-	1	3	-
		박인혁	33	2486	3	-	6	-
산지르		11	665	-	-	1	-	
신학영		12	988	-	1	5	-	
안동민		4	82	-	1	-	-	
안상현(1)		29	2226	2	1	11	-	
안주형		1	17	-	-	1	-	
윤성한		6	145	1	-	1	-	
윤용호		12	808	1	-	1	-	
이호빈		3	185	1	-	-	-	
FW	장주영	6	475	-	-	-	-	
	강현빛	6	292	-	-	1	-	
	김세윤	9	372	-	-	2	-	
	김승섭	31	2301	3	4	2	-	
	김찬	77	268	1	-	1	-	
	서우민	1	18	-	-	-	-	
	안토니오	15	1025	6	3	1	-	
	유해성	7	224	1	-	-	-	
키쭈	25	2021	6	-	4	-		
하마조치	10	614	3	1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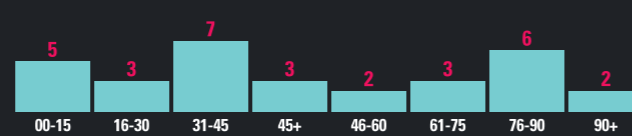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1%** 볼 점유율
- 116** 볼 점유횟수(총)
- 66** 상대진영 (57%)
- 38** 상대진영 1/4지점 (33%)
- 13** 박스 안 (11%)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48회
패스성공률	350(78%)
전진패스성공률	73%
키패스성공률	54%
크로스성공률	23%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5%
3선 (리그 평균 44%)	42%
2선 (리그 평균 56%)	58%
1선 (리그 평균 65%)	64%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안토니오	6	14	117
	키쭈	6	18	378
	하마조치	3	5	21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김승섭	4	21
	안토니오	3	13
	박수일	3	30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박수일	1628	1242	76%
	황재훈	1312	1024	78%
	안상현	1200	1041	87%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이지술	216	67%	161
	박수일	197	59%	167
	윤신영	187	74%	150



TEAM PROFILES K LEAGUE 2

서울이랜드FC



정규리그 10위 | 36전 5승10무21패
감독 | 김현수, 우성용(대행)
우성용 (대행) 감독 전적

	승	무	패
2019	4	5	15
통산	5	5	15

SUMMARY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K리그2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건 이랜드가 최초다. 제 몫을 다 해주던 선수들의 이적과 잠실주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내부 문제(보수공사)까지 겹쳐 안팎으로 힘든 시즌이었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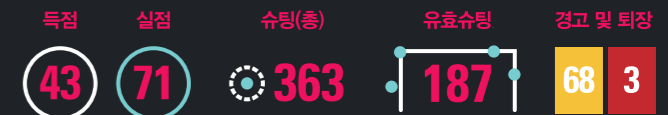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강정묵	3	272	7	8	-	-	
	김영광	34	3189	64	110	1	-	
	서동현	-	-	-	-	-	-	
DF	김동철	12	1054	-	-	3	-	
	김태현	11	1057	-	2	1	-	
	김호준	-	-	-	-	-	-	
	박성우	10	709	1	-	3	-	
	변준범	23	2038	-	-	3	-	
	서경주	15	1244	1	-	3	-	
	안지호	14	1097	-	-	-	1	
	윤성열	10	918	-	1	-	-	
	이경렬	15	1443	-	1	6	-	
	이병욱	11	686	-	-	-	1	
	이재훈	5	479	-	-	1	-	
	이태호	15	1357	1	-	4	-	
	최중환	19	1776	1	1	3	-	
	MF	권기표	21	1407	3	1	2	-
		김민규	32	2754	5	6	3	-
		김민서	-	-	-	-	-	-
		마스다	12	910	-	-	3	-
	윤상호	15	998	-	1	2	-	
	이현성	20	1201	-	1	8	-	
최한솔	13	1120	1	-	4	-		
한지훈	7	510	-	-	1	-		
허범산	29	2540	-	3	7	-		
FW	고준영	8	203	-	-	-	-	
	김경준	26	1409	4	2	1	-	
	김동섭	1	19	-	-	-	-	
	두아르테	28	2127	6	5	2	1	
	알렉스	25	1382	6	-	1	-	
	원기중	26	1571	4	3	1	-	
	유정완	11	532	1	-	2	-	
	이민규	2	97	-	-	-	-	
전석훈	13	569	1	1	1	-		
쿠티뉴	18	1438	8	1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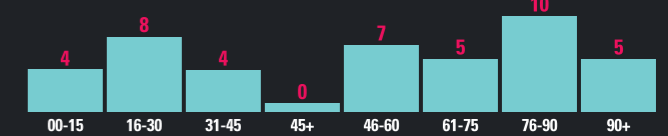
월별 득점 분포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분포



AVERAGES

- 51%** 볼 점유율
- 109** 볼 점유횟수(총)
- 63** 상대진영 (58%)
- 37** 상대진영 1/4지점 (34%)
- 13** 박스 안 (12%)

경기당 패스 시도 및 성공

총 패스시도	482회
패스성공률	391(81%)
전진패스성공률	55%
키패스성공률	60%
크로스성공률	25%

구역별 경합 성공률

4선 (리그 평균 35%)	33%
3선 (리그 평균 44%)	42%
2선 (리그 평균 56%)	54%
1선 (리그 평균 65%)	63%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공격시도
	쿠티뉴	8	19	279
	알렉스	6	19	209
	두아르테	6	30	248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김민규	6	73
	두아르테	5	32
	원기중	3	26

PASSES	이름	패스	성공	성공률
	김민규	1574	1263	80%
	허범산	1534	1275	83%
	변준범	1151	1010	88%

DEFENDING	이름	공 퇴함	태클성공률	인터셉트
	변준범	184	60%	152
	허범산	141	59%	116
	이경렬	138	62.8%	99

2019 K LEAGUE TECHNICAL REPORT

발행처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Instat

기획 및 편집 주식회사 별

디자인 디자인아이엠

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2020년 1월 3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허가 없이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Instat의 K리그 부가 기록의 기준에 따릅니다.

2019 K LEAGUE TECHNICAL REPORT

2019 K LEAGUE 2
CHAMPIONS
GWANGJU FC



- 1. G. YOON PUNGGU
- 2. G. BONG JANTON
- 3. G. ASHARIMATOU HAZRIMON
- 4. G. HEN TAE YOUN
- 5. H. CHOI JIMHYUN
- 6. H. PARK JANGDOO
- 7. H. YEO BELM
- 8. L. LEE SUJUNO
- 9. H. CHOI SODA SILLA RYU
- 10. H. CHANGHYEON
- 11. H. KIM SOONHARAN
- 12. L. LEE SEUNG
- 13. H. DOO HIRNGEOK
- 14. H. YEO BONGHAN
- 15. H. HONG JONG
- 16. H. LEE HAJONG
- 17. H. BOM WONSANG
- 18. H. JO JUYEONG
- 19. H. CHOI
- 20. H. CHOI
- 21. H. CHOI
- 22. H. CHOI
- 23. H. CHOI
- 24. H. CHOI
- 25. H. CHOI
- 26. H. CHOI
- 27. H. CHOI
- 28. H. CHOI
- 29. H. CHOI
- 30. H. CHOI
- 31. H. CHOI
- 32. H. CHOI
- 33. H. CHOI
- 34. H. CHOI
- 35. H. CHOI
- 36. H. CHOI
- 37. H. CHOI
- 38. H. CHOI
- 39. H. CHOI
- 40. H. CHOI
- 41. H. CHOI
- 42. H. CHOI
- 43. H. CHOI
- 44. H. CHOI
- 45. H. CHOI
- 46. H. CHOI
- 47. H. CHOI
- 48. H. CHOI
- 49. H. CHOI
- 50. H. CHOI

OUR PR